
I 남도





여수시
변천사

I. 낭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 지리적 배경

1) 인구

낭도의 인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193세대 29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남성이 137명, 여성이 16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더 많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현황 (명)

| 세대수 | 인구수 | 남 | 여 |
|-----|-----|-----|-----|
| 193 | 297 | 137 | 160 |



여산마을 2010





여산마을 항공사진

2) 토지

남도의 면적은 5.303km², 해안선의 길이는 19.5km이며, 이번 조사 대상 도서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다. 전답은 1.53km², 임야는 3.519km², 대지 0.056km², 기타 0.198km²이다.

토지 현황 (km²)

| 면적 | 전답 | 임야 | 대지 | 기타 | 해안선 |
|-------|------|-------|-------|-------|--------|
| 5.303 | 1.53 | 3.519 | 0.056 | 0.198 | 19.5km |



남도중계민원출장소 현재와 1999년도 모습

3) 공공기관

(1) 남도중계민원출장소

1966년 6월 1일 화정면 남도출장소로 개소하였다. 개소 당시에는 여산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현재 위치(화정면 여산길 79)로 이전했다. 2007년 5월 30일 남도중계민원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2) 남도치안센터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에 남도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파출소장으로 경사 등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도서 지역의 특성상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였다가 1962년 경찰관 연락소를 개소하였다. 이후 화정파출소 남도 초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현재는 남도치안센터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남도리 1305-7번지에 위치하던 것을 2003년 12월 18일 현재 위치(화정면 여산길 75)에 신축이전하였다.





(3) 여수농협 남도지소

화정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설립되었고, 1974년에는 자립조합으로 승격하였다. 1987년 8월 21일, 남도에 화정농협 남도지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98년 2월 10일 여수, 돌산, 남면, 화정, 삼산조합의 합병으로 명칭이 여수농협 남도지소로 변경되었다. 여수농협하 나로마트 남도지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4) 기타

여산마을과 규포마을에 각각 리사무소(마을회관)가 있으며, 여산리사무소는 화정면 여산길 51에 위치해 있고, 규포리사무소는 화정면 규포해안길 21에 위치한다.

소방서는 없으며, 의용소방대 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어 화재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여산리사무소



규포리사무소



의용소방대 소방차



여산리민방위 수방기동대 현판



남도선착장



남도여객선터미널



남도여객선 대형카페리 3호



규모대합실



규모 선착장

4) 주요선착장

주요선착장으로 여산마을에는 낭도선착장, 구포마을에는 구포선착장이 위치하고 있다. 연륙연도교 건설 이후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2020년 9월경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기능 대부분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낭도선착장에서 여수항까지의 직선거리는 23.24km이고, 백야항(백야도)까지 직선거리는 약 9.6km이다. 구포선착장에서 여수항까지의 직선거리는 20.99km이고, 백야항까지 직선거리는 7.7km이다.

5) 교육기관

(1) 화양중학교 낭도분교장 (남도중학교)

| 연혁 | 1969년 10월 14일 화정중학교 낭도분교장으로 설립되어 이듬해인 1970년 3월 23일 개교하였다. 1972년 12월 26일 여천남도중학교로 인가되었고, 이후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1995년 3월 1일 여산초등학교 화정중학교 낭도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1998년 3월 1일 다시 여산초등학교 화양남중학교 낭도분교장으로 통폐합되었다가 2001년 3월 1일 다시 화양중학교 낭도분교장으로 통폐합되었다. 2013년 3월 폐교되었다.

| 교가 | (작사 유상근/작곡 현제명)

1. 남쪽 바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데 / 씩씩하고 늠름하게 자라는 우리 /
사랑과 봉사를 배워 익히려 / 우리 여기 모였다 배움의 터전 /
바닷바람 시원하다 낭도중학교
2. 한반도의 나목바다 낭도섬 위에 / 병글병글 명랑하게 뛰노는 우리
슬기와 기능을 배워 익히며 / 우리 여기 모였다 배움의 전당
바닷물결 잔잔하다 낭도중학교

| 교목 | 기상을 상징하는 해송이며, 교화는 용기를 상징하는 국화이고, 교색은 순정을 상징하는 백색이다.

| 기타 | 학교 정문 오른쪽에 1974년 3월부터 1976년 2월까지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춘기 교장을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가고싶은 섬’ 사업으로 학교운동장을 캠핑장으로 조성하였으며, 관리동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낭도중(2008년) /
 낭도중(현재) /
 낭도중 캠핑장 /
 낭도중 현판 /
 김춘기교장 공적비
 (시계 방향)

(2) 안일초등학교 여산분교장 (여산초등학교)

| 연혁 | 1939년 4월 13일 낭도공립심상소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4월 19일 4년제 2학급으로 학교 문을 열었다. 1941년 낭도공립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다가 1945년 9월 30일 광복 뒤에 다시 개교하였다. 1946년 7월, 2학급의 적금분교장, 1948년 3월 1일, 1학급의 조발분교장, 1954년 4월 1일, 사도분교장이 문을 열었다. 1959년 7월 25일 여산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0년 4월 7일 둔병분교장, 1967년 추도분교장, 1972년 3월 17일 규포분교장 설립으로 6개의 분교장을 갖게 되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1984년 3월 1일 추도분교장, 1987년 2월 28일 규포분교장, 1996년 2월 28일 사도분교장과 조발분교장, 1998년 3월 1일 둔병분

교장이 폐교되었다. 1996년 여산초등학교로 학교 이름을 다시 바꾸었으나 2001년 3월 1일 적금분교장이 폐교됨에 따라 안일초등학교 여산분교장으로 통합되었다. 2012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 교가 | (작사, 작곡 최용환)

충무공 가르침이 깃들어 있는 / 넓고 푸른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
배우고 일하며 튼튼하자고 / 승리를 자랑하는 여산학교

| 교목 | 향나무로 사철 푸르른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내고, 교화는 동백으로 신중과 겸손을 의미한다. 교색은 희망과 발전을 의미하는 녹색이다.

| 규포분교 | 1971년 11월 20일 남도국민학교 규포분교장으로 인가되어 1972년 3월 17일 설립되었다. 이후 인구감소로 1987년 2월 28일 남도국민학교 규포분교로 폐교되었다.



안일초등학교 여산분교(2008)



안일초등학교 여산분교



남도국민학교 규포분교

|기타| 1987년까지만 해도 낭도중학교 학생들은 구명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배를 타고 통학하고 있었다. 여천군교육청에서 1987년 12월 말부터 15t급 강선을 진수하고, 낭도중학교 통학선으로 배치해 인근의 조발도, 적금도, 둔병도, 사도 등의 섬을 운행하면서 학생들을 수송하였다.

한편, 동아일보 1982년 10월 4일 신문에 규포분교 학생들에게 서울 관광을 시켜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당시에는 규포마을에 가기 위해서 여수항에서 여객선 청해호를 두 시간 남짓 타고 낭도에 도착한 뒤 다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섬을 끼고 돌면 도착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여산마을에서 규포마을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가 없어 여산마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한 것이다. 마포경찰서 양덕파출소 정수영 소장이 2년 동안 봉급에서 매월 조금씩 모아 50여만 원을 마련하여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은 낭도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왕복교통비와 서울 고궁입장료 등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당시 신문기사

6) 사회조직

(1) 사회조직

낭도는 마을이 2개이고, 마을별로 개발위원회와 노인회, 부녀회가 별도로 있어 인근의 다른 섬에 비교해 사회조직이 많은 편이다. 특히 여산마을에는 여자노인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여자경로당이 별도로 있다.

새마을식당 2층에 노인회관이 있었으나, 2층까지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였다. 출향인 김종민씨가 노인정 부지를 기부하여 여산노인정을 신축이전하면서 2017년 3월 21일 공적비를 세우기도 했다. 규포마을에는 노인정이 없다.



남도 여자경로당



여산노인정



노인정 공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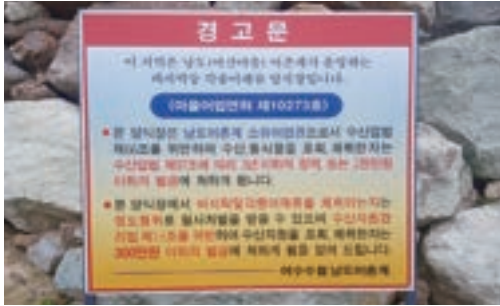
구 남도노인회관 (새마을회관 2층)



남산정

(2) 어촌계

각 지역 어촌계는 1962년 4월에 발효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5조에 따라,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한 단체, 어촌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며, 총회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임원은 계장, 간사, 감사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다.



남도어촌계 경고문



남도어촌계 규포마을 경고문

또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어촌계원의 구성 및 설립 방법은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 2조에 따른 도서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도서별 어촌계 설립 시기는 1962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전에 도서별로 어촌계 형식의 단체는 존재하였으나, 법적으로 정식명칭을 얻게 된 것은 1962년 4월 이후인 것이다.

남도 어촌계는 남도 여산마을, 규포마을, 사도를 포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어촌계원 수가 80~100여 명을 유지하다가 현재(2020년 5월 기준) 126명으로 가장 많다. 남도 여산마을 108명, 규포마을 10명, 사도마을 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8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50대가 일부 있고 40대 이하는 없다.

특히 사도의 경우 남도에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교통편이나 생활권이 다르게 됨에 따라 현재 어촌계 분리를 준비 중이다.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생산물은 공동어장에서 바지락, 톳, 미역, 김 등을 공동으로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바지락, 톳, 미역 정도만 채취하여 어촌계 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주변 어장에서 어촌계원 각각의 어업은 통발, 주낙을 이용한 방법과 낚시어선, 낭장망 등을 주로 행하고 있다. 여산마을 관할 섬은 목도(나무섬), 납대도, 납덕여, 문여 등이고, 규포마을 관할 섬은 살피도가 있으며, 사도 관할 섬은 납작여, 작은뒷여 등이 있다.

7) 남도보건진료소

여천군보건소에서 1982년 남도리 1010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건진료소를 개소하였다.¹⁾ 이후 1997년 6월 9일 현 위치(화정면 여산길 62)로 신축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진료구역은 여산마을, 규포마을, 사도마을이며,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남도보건진료소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남도는 여자만 입구 즉,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둔병도와 조발도, 적금도, 동으로는 상계도, 남으로는 사도와 추도 등이 분포한다.

남도는 최고봉인 상산(280m)을 중심으로 동쪽은 산지를 이루는 반면, 서쪽은 기복이 낮은 구릉지를 형성한다. 주로 암석해안을 이루어 곳과 만이 서로 번갈아 나타나는 복잡한 해안선을 나타낸다.

(1) 모래해안

모래해안(sand beach)은 파랑의 작용으로 모래가 퇴적된 지형이다.



도서지역 위치

1.적금도 2.둔병도 3.조발도 4.남도 (박계현 외, 2003)

¹⁾ 1984년 10월 1일에 개소했다는 기록도 있다.



모래해안

이들 모래는 주변 암석해안에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생성되거나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다. 토사운반이 활발한 배후하천이 있는 경우 대규모 모래해안이 형성된다.

대표적인 장사금해수욕장은 작은 포켓비치(pocket beach)에 형성된 해변으로 주변 암석해안에서 공급된 모래가 연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만입부에 퇴적된 것이다.

(2) 파식대

남도 남동단 남도등대 아래에 위치한 파식대는 주변 돌출부의 암석해안이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파식대지 위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3) 해식애

해식애(sea cliff)는 육지가 파랑의 침식작용을 받아 후퇴할 때 형성된 급한 절벽으로 파도가 강한 암석해안에서 잘 발달한다. 주상절리나 수직절리가 발달한 해안에서는 해식애가 잘 형성되고, 해식애 기저부가 파도로 부서지고 나면 상부의 암석이 떨어지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용으로 경사가 급한 절벽이 유지된다.

남도 남서쪽 암석해안에 형성된 급애로 남쪽 해안을 대표하는 지형경관 중 하나이며, 소규모 노치(notch)가 함께 분포하여 다양한 해안지형을 보여준다.

방과제 쪽으로는 소규모 단애가 있으며 방과제 축조 후 주변 해안지형변화가 예상된다.



장사금 해수욕장(사빈) : 이정훈



남도 탐고지 일원의 중생대 퇴적층과 주상절리(좌), sea cliff (우)
(34° 36' 59" / 127° 31' 29" , 2010.07.27, 2011.02.20. 출처:이정훈,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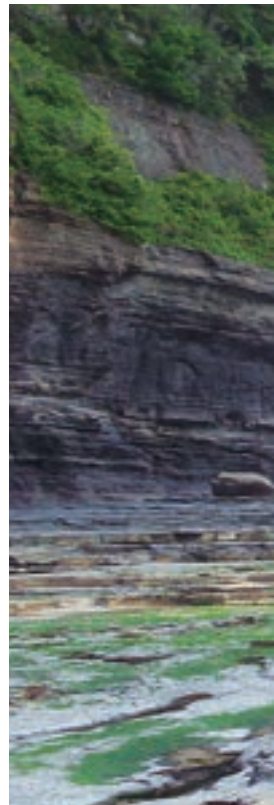
남도 등대 주변의 주상절리 (사진 : 이정훈)

(4) 주상절리

남도 남서쪽 신선대와 쌍용굴 사이(남도등대 주변: 사진)와 서쪽 탐고지 일원에 발달해 있다. 화산암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로 현무암이나 안산암질 용암이 냉각 수축될 때 형성된다. 남도의 경우, 안산암질 응회암이 굳어질 때 용암이 수축하면서 수직상의 절리를 형성한 것이다. 기반암인 수평층리를 이루는 퇴적암 위에 용암이 분출하여 기반암이 피복되면서 수직상의 절리를 이루어 기반암층과 절리상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지질 특성이다.

(5) 타포니

남도항 건너편으로 남도항북방과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염풍화혈이 안산암 표면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6) 공룡발자국 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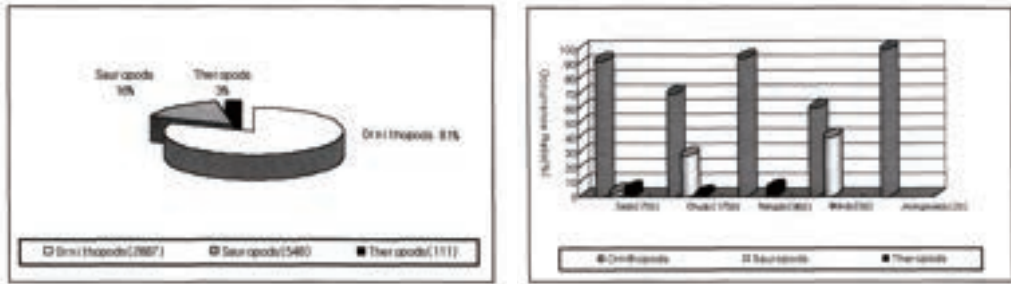
남도 공룡발자국 화석은 대부분 남도 등대에서 해안의 서쪽을 따라 잘 나타난다. 발자국의 방향은 보행열 중심 쪽으로 돌려 찍혀 있으며, 발뒤꿈치(heel pad)가 찍혀 있다. 발톱은 무디고 전체적인 외곽선이 해남 우황리에서 발견된 조각류 발자국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여수시, 2002). 남도에서 발견되는 보행열도 조각류와 수각류의 보행열이며, 용각류 보행열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정훈, 2012a)



공룡발자국 화석 (사진 : 이정훈)



남도 등대 주변의 화석지



공공발자국 화석 비율 (허민 외, 2001)

(7) 남도의 지오투어리즘

남도의 관광자원은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2003년)된 공룡 화석지 및 해안지형 경관과 당재 등 무형문화자원이 주를 이룬다.

남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경관은 해식애와 사빈, 역빈 같은 해안지형과 공룡발자국 화석, 주상절리, 퇴적암 층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 자연관찰로 | 지오사이트 | 탐방 기대 효과 | 보존상태 및 개선점 | 탐방시간 |
|---------|-----------|------------------------|---------------------------------|------|
| 남부해안 코스 | 여산 당산나무 | 여산 당재 이해와 민속문화 보존 | 당재와 관련된 해설판 설치 요망 | 30분 |
| | 남도 사빈 | 인위적 요인에 의한 해안지형의 변화 이해 | 사빈 모래 유실 발생, 해안 쓰레기 청소 | 30분 |
| | 장사금 사빈 | 사빈의 형성과정 이해 | 해안 쓰레기 청소 | 30분 |
| | 공룡발자국 화석지 | 중생대 지층노두 이해 | 화석지 보존 방안 및 탐방로 개설 필요, 해설판설치 요망 | 40분 |
| 서부해안 코스 | 중생대 지층 노두 | 지층의 기반암과 암석조성의 이해 | 선상투어 필요 | 20분 |
| | 암사 역빈 | 역 빈매도와 입경 특징 관찰 | 해안 쓰레기 청소 | 40분 |
| 북부해안 코스 | 간석지 | 간석지의 특징과 이용 | 보존 상태 양호 | 30분 |
| | 규모 마을 | 마을 유래와 역사, 어른체험 | 해설판 설치 필요 | 30분 |
| 상산 코스 | 상산 정상 | 남도의 산지 특성 이해 | 정상 봉화대 정비 요망 | 2 |
| | 조망 포인트 | 주변 도서 분포 관찰 | 임터 정비 요망 | 시간 |

출처 : 이정훈 (2016b)

2) 지질

남도과 사도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 신성리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성리층은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여수반도 서남측 남도와 사도, 백야도, 하화도 일대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지층 구성상 응회암질 사암과 적색사암, 역암, 셰일, 실트암, 유문암질 응회암, 안산암질 응회암 등으로 다양하다. 남도는 백악기 경상계 누층군의 흑색 셰일층과 산성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흑색 셰일층은 북서-북동 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유문암질 응회암과 유문암류의 산성화산암류가 남도의 상부를 덮고 있다. 남도는 전체적으로 섬 중앙부와 남도산을 중심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응회암류가 분포하며, 서쪽 일대 해안가와 남쪽 일대 해안가의 해식애를 형성하는 노두에서는 층리가 발달한 사암, 실트스톤(silt stone), 셰일 등이 분포하고 있다. (전라남도, 1999).

3) 토양

해안선은 곳곳에 소규모의 만과 꽃이 연이어져 있다. 만입부는 대부분 사빈해안이고, 남쪽 돌출부는 암석해안이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이며, 토양은 신생대 제4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바다에서는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멸치잡이를 위한 낭장망이 설치되어 있다.



적금-남도 지질도 (박계현 외, 2003)

4) 기후

남도 일원의 기후는 남부해안형 기후구에 속하는 온난 다습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특히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날씨가 무덥고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집중된다. 겨울철에는 한랭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며, 삼한사온의 주기적인 날씨 변화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뚜렷한 특색을 보이지 않는다.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약 14.0℃, 약 1,400mm이다.

5) 조류

여자만 평균 해수면은 약 1.94m이고, 2015년도 연평균 고조위는 2.141m, 저조위는 -2.062m이다. 그리고 연평균 해수온도는 17.7℃, 연평균 염분농도는 32.9PSU, 연간 염분농도 변화는 32.0~33.9PSU이다.

최강창조류 0.93m/sec, 최강낙조류 0.82m/sec, 평면해면 181m, 대조차 297m, 소조차 108m이다. 민물의 유입량이 적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평균수심 40m 내외, 최대조차 3.9~4.2m이다. (국토해양부, 2011)



남도 항공사진 (2011)

6) 주변환경

해안선은 곳곳에 소규모의 만과 곶이 연이어져 있다. 만입부는 대부분 사빈해안이고, 남쪽 돌출부는 암석해안이다. 바다에는 남도 지방의 대표적인 멸치잡이를 위한 낚장망이 설치되어 있다. 동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로, 해안은 만과 곶이 교대로 이어지고 있어 해안선의 드나듦이 많다.

7) 주변도서

부속도서로 사도가 있으며, 인근에 조발도(화정면 조발리), 둔병도(화정면 조발리), 적금도(화정면 적금리)가 있다. 부속무인도서로 살피도, 납대도, 목섬, 문도(문섬) 등이 있다.



살피도



목섬



문섬

8) 낭도등대(남포등대)

정식명칭은 낭도등대이지만 몇몇 기록과 안내표지판 등에는 ‘남포등대’라 표기하고 있다. 낭도 남쪽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등대로 이 일대 섬들을 연결해주는 연안여객선과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에 대한 항로표지를 하는 등대이다.

이 등대가 위치한 낭도의 끝단인 송곳여의 바로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섬인 사도와와의 거리는 불과 260m가량으로 썰물 때에는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더 줄어드는 매우 좁은 수로인데다 양쪽 섬이 모두 바위 해안이어서 대형 선박은 항행이 제한되고, 소형선박이라 하여도 항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해역이다. 또한, 낭도등대 바로 서편의 해역에는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항해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낭도등대 남서쪽 1km 해상에는 바위섬인 목도가 있는데 노출암과 간출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수항을 출발해서 사도를 거쳐서 낭도항으로 들어가는 연안여객선들에게 주의를 요구한다.

| | |
|-------|-----------------------------------|
| 등대번호 | 2537 / M4305 |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113-2 |
| 경위도 | 34°35′40″N, 127°32′59″E |
| 등고 | 21m |
| 높이 | 9m |
| 최초점등일 | 1965년 12월 1일 |
| 광파표지 | 기종 : 250m/m / 등질: FLW55 / 5초 1백섬광 |
| 광달거리 | 지리학적: 14해리 / 광학적: 11해리 / 명목적: 8해리 |



낭도등대



남포등대라고 표기한 안내판

다. 식생과 생태

1) 생태자원

생태자연도상 남쪽 해안가 일부분이 수자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용과 개발 최소화 지역인 2등급이고 주거지와 경작지는 이용과 개발 가능한 3등급으로 되어있다.



병꽃

금창초

덜꿩

새완두

2) 식생

남도의 주요 식생 중 상록넓은잎나무는 돈나무, 사스레피나무, 후박나무, 송악이 우점종이다. 갈잎넓은잎나무는 병꽃나무, 멸구슬나무, 소사나무, 붉나무가 우점종이다. 소나무 같은 상록바늘잎나무는 곰솔과 노간주나무가 우점종한다.

우리나라 남해안 섬 지역 숲의 천이는 극상에 도달하면 상록넓은잎수종으로 천이가 이루어진다. 남도의 갈잎넓은잎수종 중 생태 우점하는 나무와 극상의 특징을 보면 기후온난화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인근 섬들은 상록넓은잎나무가 주를 이루던지 아극상에서 극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 하지만 남도는 주변 섬들에 비해 아직 곰솔 비중이 큰 편이다. 상대적으로 숲이 인근의 섬들보다 사람의 간섭을 덜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남도의 주요 식생은 상산(283m)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곰솔군락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갈잎넓은잎수종인 소사나무군락과 상록넓은잎수종인 송악, 후박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군락 등이 분포하고 있다. 송악은 주로 소나무를 기주식물로 살아가면서 소나무는 고사하고, 송악이 생태계를 점령해 송악군락이 생성된다. 이런 생태 현상으로 송악군락이 생성된 곳은 소나무 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섬의 중앙을 중심으로 어가와 농경지가 발달해 있다. 방치된 휴경지에는 광대나물군락, 망초군락, 여뀌군락, 환삼덩굴군락 등 초기 휴경지 우점종들이 출현하였다.

3) 식물상

남도에서 자생하는 상록넓은잎 수종은 위의 우점종하는 종과 참식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마삭줄, 자금우 등이 출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수종으로 곰솔, 리기다소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송악, 마삭줄, 돈나무 등이다. 갈잎넓은잎 수종으로 봄에는 특히 병꽃나무가 지천을 이룬다. 병꽃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후온난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나무를 떨감으로 쓰던 시절 떨감용으로 마구잡이로 베어져 그 개체 수가 늘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상산에는 참나리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천남성의 개체 수도 군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다.

드물게 물레꽃, 타래난초, 술패랭이, 이스라지, 하늘말나리, 짚신나물 등의 특이종도 개체 수를 늘려간다. 봄에 열매를 맺는 들보리수와 보리장도 심심찮게 보이고 예덕나무가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동나무 개체 수가 군락에 가깝게 분포하고, 결실률도 높아서 열매가 매우 많다.

초본류는 돈나물, 소루쟁이, 환삼덩쿨, 살갈퀴가 고루 분포한다. 인근 지역이 개망초가 많은 것과 달리 남도 지역에는 망초가 군락을 이룬다. 산타바오거리 인근 밭 담벼락에는 이른 봄철 온통 무릇 천지이다. 제비꽃, 귀리, 갈퀴, 사철쭉, 팽이밥 등도 많은 개체 수가 분포한다. 엉겅퀴, 그늘사초, 새, 서양민들레, 쑥바귀, 방가지뚝, 달맞이, 사위질빵, 꼭두서니, 쑥 등도 쉽게 눈에 띈다.



갯까지수영



명석딸기



모람



흰갯메꽃



예덕나무



좀개자리



접시꽃



접시꽃

장사금해수욕장에서 주상절리까지 가는 바닷가에는 갯까치수영과 원추리, 참나리, 솔나리 군락이 생태 우점한다. 해국, 갯국, 인동, 사철쭉, 천선과 등도 분포하고 있다. 그 외 민가 주변으로 비름, 한련초, 진득찰, 도깨비바늘과 미국가막사리가 분포한다. 어느 방송에서 약초라고 소개된 뒤 개체 수가 많이 줄었던 쇠뜨기도 다시 개체 수를 늘려가고 있다.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파리풀,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땡땡이덩굴, 실새풀, 주름조개풀, 띠, 억새, 솔새, 비수리,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도 출현하고 있다.

규포마을 쪽 바닷가로 가는 길목에는 이름도 생소한 좀개자리와 냉이 종류들이 주류를 이룬다. 늪지에는 위의 초본류들 외에 갈대, 매듭풀이 분포하며, 희귀종인 하얀 메꽃도 군데군데 보인다.

이른 봄에 규포마을은 집집마다 담벼락에 하얀 장딸나무가 멋진 풍경을 자아낸다. 인근의 다른 지역 담벼락이 주로 송악인 것과 달리 규포마을 쪽은 담쟁이 넝쿨이 담벼락을 장식한다.

규포는 특별히 접시꽃으로 섬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섬을 접시꽃 단지로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중 초본류인 광대나물, 금창초, 등대풀, 발풀고사리, 봉의꼬리, 큰개불알풀, 개요 등도 섬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목본인 개비자나무, 굴거리나무, 다정큼나무, 돈나무, 동백나무, 먹구슬나무, 보리밥나무, 사람주나무, 사스레피나무, 송악, 실거리나무, 후박나무도 쉽게 볼 수 있는 수종이다.

4) 동물상²⁾

낭도는 도롱뇽, 청개구리, 두꺼비,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양서류와 도마뱀, 아무르장지뱀, 누룩뱀, 쇠살모사 등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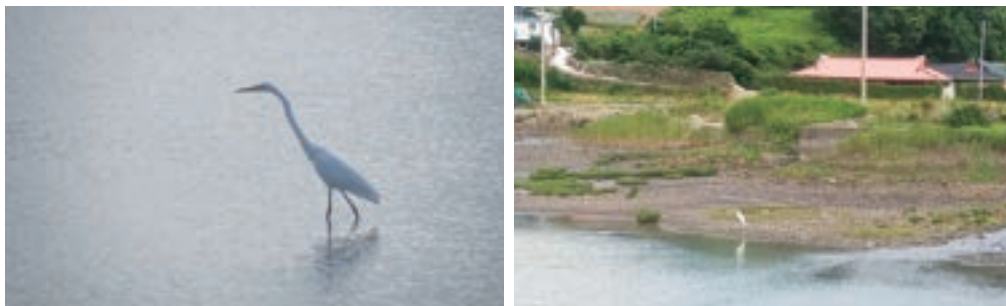
곤충류는 두꺼비메뚜기, 밀잠자리, 방아깨비, 팔중이, 검은다리실베짚이,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된장잠자리, 밀잠자리, 노랑무늬먼지벌레, 남방노랑나비, 남방제비나비, 네발나비, 왕자팔랑나비, 검은점뽕족명나방, 곤은띠비단명나방, 금빛갈고리나방, 깃노랑들명나방, 꼬마봉인밤나방, 꼬마수증다리밤나방, 남방부전나비, 녀점물결애기자나방, 넓은띠흰꼬마밤나방, 노랑다리들명나방, 노랑췌기나방, 노랑줄박각시, 담배거세미나방, 담배나방, 대만수염나방, 독나방, 목화명나방, 무궁화잎밤나방, 물결나비, 밤색갈고리나방, 배붉은흰불나방, 사과잎말이나방, 실줄물결자나방, 썩은밤나방, 알락굴벌레나방, 암떡부전나비, 애기세줄나비, 어린밤나방, 왕무늬푸른자나방, 외줄들명나방, 작은검은꼬리박각시, 작은주홍부전나비, 점흰독나방, 좁쌀무늬밤나방, 줄박각시, 줄점불나방, 줄점팔랑나비, 쥐박각시, 참나무재주나방, 청백무늬밤나방, 총채수염나방, 큰갈고리나방, 큰톱날물결자나방, 흰갈퀴애기잎말이나방, 흰띠명나방, 검은다리실베짚이, 긴날개여치, 넓적배허리노린재, 된장잠자리, 두점배허리노린재, 등검은메뚜기, 밀잠자리, 배자바구미, 산바퀴, 애매미, 왕사마귀, 왕과리매, 청동풍뎡이, 털매미, 한국땅딸보메뚜기, 홍보라노린재 등 총 11목 51과 138종으로 나타났다.

나비목이 18과 52종, 딱정벌레목 11과 26종, 벌목 5과 17종, 노린재목 5과 15종, 메뚜기목 2과 9종, 파리목 4과 7종, 잠자리목 2과 6종, 매미목 1과 3종, 바퀴목, 사마귀목, 집게벌레목이 각각 1과 1종으로 분포한다.

조류는 왜가리, 쇠백로, 붉은배새매, 조롱이, 새매, 황조롱이, 매, 꿩, 중부리도요, 깃잡도요, 꿩이갈매기, 멧비둘기, 물총새, 파랑새, 쇠딱다구리, 제비, 귀제비,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백할미새, 큰발종다리, hing동새, 직박구리, 때까치, 딱새, 검은딱새, 바다직박구리, 쇠솔딱새, 큰유리새, 흰배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눈썹솔새, 산솔새, 오목눈이, 쇠박새, 진박새, 박새, 곤줄박이, 동박새, 어치, 물까치, 까치, 까마귀 등 44종이 서식한다. 산지와 농경지에는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딱새, 박새, 까치 등 대부분 산새가 주로 분포하며 해안을 중심으로 왜가리, 꿩이갈매기 등의 물새류가 분포한다.

포유류는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두더지, 등줄쥐, 멧돼지, 멧밭쥐, 멧토끼, 삥, 염소, 족제비, 집쥐, 청설모 13종이 분포한다.

2) <http://islands.jeonnam.go.kr> About 전남의 섬



백로 (규포)

5) 해양생물

어류를 포함한 어획물은 2011년도에 낭장망 어장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멸치가 우점종으로 출현하였으며, 곤어리, 뱀망이, 대하, 황줄베도라치, 병어, 갈치, 돌돔, 썸뱅이, 쭈기미, 삼세기, 성대, 애기갑오징어, 털꽃게, 꽃게 등을 비롯한 생물이 7목 15과 18종이 출현하였다.

저서동물은 조간대 암반조사 결과 총 10종이 출현하였으며, 자포동물 1종, 연체동물 3종, 극피동물 5종, 척삭동물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포동물에서는 부채빨산호, 연체동물에서는 방석고둥, 두드럭고둥, 털껍질돼지고둥, 극피동물에서는 별불가사리, 아무르불가사리, 짧은가시거미불가사리, 하드웍분지성게, 분지성게, 척삭동물에서는 미더덕이 출현하였다.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수리



별불가사리

해조류는 총 22종이 출현하였으며, 녹조류 2종, 갈조류 7종, 홍조류 1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집된 종은 작은구슬산호말, 개서실, 참까막살, 굽은석목, 왜모자반, 참모라색우무가, 구멍갈파래, 툫, 미역, 가죽그물바탕말, 우뚝가사리, 돌가사리, 애기돌가사리, 애기서실, 진두발, 잎꼬시래기, 석목, 외톨개모자반, 팽생이모자반, 청각, 두갈래분홍치, 감태가 서식하고 있다.

해초류는 총 1종이 출현하였으며, 일명 잘피라고 불리는 거머리말이 섬 북쪽만과 남쪽 해수욕장, 규포마을 선착장 등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선착장 안쪽 펄질에 서식하는 해조상 / 암반 조간대에 서식하는 해조상



남도 북쪽만에 서식하는 잘피류



남쪽 해수욕장에 서식하는 잘피류



규포마을 선착장내에 서식하는 잘피류



잘피류



6) 기타생태자원

(1) 보호수

화정면 낭도리 1015번지에 지정번호 15-2-6-10의 느티나무가 1982년 12월 3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약 300년, 수고는 10m 정도이다. 과거에는 종을 매달아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종을 쳐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으며, 정자나무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 외에 팽나무 2그루가 있는데 이 중 1그루는 마을 당산나무로 옛날 풍어제 및 기우제를 지냈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공유수면이나 인접구간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여수시는 육지부 39.8km², 해수면 372.5km²로 전체 412.3km²가 지정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1) 고문서에 나타난 낭도

| 사서명 | 허목 목장지도(1678) | 호구총수(1789) | 대동여지도(1861) | 순천부지도(1872) |
|-----|---------------|------------|-------------|-------------|
| 명칭 | 狼島, 耳里島 | 狼島 | 狼島, 伊老島 | 日利島 |



호남연해형편도



대동여지도

2) 낭도의 연혁

삼국시대의 낭도는 백제에 편입되어 삼평군 예하의 돌산현에 속한 섬이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가야국이 남원과 섬진강 하류지방에 진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가야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여수지역은 여수반도가 상다리현이었고, 도서 지역이 하다리현이었다. 따라서 낭도는 하다리현에 속하였다.

백제는 538년 수도를 사비성으로 옮기고 전국을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5방을 두었다. 방에는 방성(方城)을 설치하고, 여러 크고 작은 성을 군 혹은 현으로 통제하여 지배하였다. 남방에 속하였던 순천·여수·광양지방에는 삼평군(歙平郡)이 자리잡고 있었다. 삼평군에는 원촌(猿村), 마로(馬老), 돌산(突山) 등 3현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 원촌현은 여수

반도 일원이며, 돌산현은 돌산도를 비롯한 인근의 섬을 그 영역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여수 지방에 처음으로 원촌과 돌산이라는 이름의 군현이 설치되어 남도 역시 돌산현에 속하게 되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 전남지방은 무주가 관할하였으며, 순천, 여수지방의 삼평군이 승평군으로 바뀌고 그 속현이었던 원촌, 마로, 돌산현은 각각 해읍, 희양, 여산현으로 변경되었다. 통일신라 시기 여수반도는 해읍현, 조발도가 포함된 도서에는 여산현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의 여수는 해읍현이 여수현으로 개칭되고, 돌산과 그 인근 섬을 관할하던 여산현이 백제시기의 돌산현이란 이름을 되찾았다.

조선시대의 여수는 군현이 폐지되고 여수지역에는 현이 설치되지 못하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군진지가 설치된다. 남도는 돌산포만호진의 통제하에 있다가 중종 때 돌산포만호진이 혁파되고, 방담첨사진이 설치됨에 따라 고종32년(1895) 전라좌수영이 혁파될 때까지 전라좌수영이 통제를 받게 되었다.

1896년(고종 33) 2월 3일 칙령 제13호에 의하여 돌산군, 완도군, 지도군의 3개 도서 군이 설치되어 돌산군의 초대 군수로 조동훈이 부임하였다. 이때 화정면은 화개면과 옥정면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었는데 남도는 옥정면에 속하였다. 당시 화개면의 면소재지는 개도 화산이었고, 옥정면 소재지는 적금도였다.

돌산군은 1914년 3월 1일, 18년 만에 폐군되었고, 여수군으로 통합되면서 화개면과 옥정면도 합쳐져 화정면이 되어 남도 역시 화정면 소속이 되었다.

나. 마을유래

1) 여산마을

여산마을은 법정리 남도리(狼島里)에 속하는 마을이다. 정확한 입도조와 마을 형성시기는 알 수 없다. 남도에서 가장 큰 마을로 섬의 모든 산이 아름답고 수려하여 ‘고울려(麗)’자와 ‘되 산(山)’자를 써서 여산마을이라 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성명미상의 강릉 유씨(江陵劉氏)가 처음 입도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 후 경주이씨(慶州李氏), 전의이씨(全義李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진주강씨(晉州姜氏), 경주최씨(慶州崔氏), 경주정씨(慶州鄭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인동장씨(仁同張氏) 등이 차례로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여산마을

2) 규포마을

낭도리에 속하는 마을로 정확한 입도조와 마을 형성시기는 알 수 없다. 마을 앞 갯가의 모양이 마치 도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도장개로 불렸다. ‘도장 규(閨)’자와 ‘물가 포(浦)’자를 써서 규포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입도시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김녕김씨(金寧金氏)가 고흥군에서 건너와 처음 정착하였고, 그 후 경주정씨(慶州鄭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진주강씨(晉州姜氏) 등이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규포마을 항공사진

다. 사건·사고

남도는 섬 면적은 크지만, 물이 부족하였다. 특히 겨울에는 식수사정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낮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밤이면 물을 기르느라 갖은 고생을 하였다. 1966년부터 답동 마을 위에 상수도 수원지를 건설해 파이프를 집집마다 연결하는 공사를 5년에 걸쳐 실시하여 준공하였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면장과 마을 유지가 구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재보수와 추가공사를 하고서 상수도를 완공하였다.

남도에 전화가 들어온 시기는 1962년이였다. 손잡이를 돌리는 자석식 전화기가 가설되어 긴급통신이 가능해졌으며, 이후 1966년 12월 1일부터 시간제 전화를 운영하였다. 전기는 1978년 12월 1일에야 전기선이 연결되었다.



상수도 완공사진 (1971.4.1 / 출처 : 화정면지)



공룡화석조사 (2000)

라.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낭도 공룡화석지

공룡화석지는 여수 화정면에 속하는 사도, 추도, 낭도, 목도, 적금도 등 5개 섬 지역의 백악기 퇴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조사결과 발견된 공룡발자국은 총 3,546점으로 사도에서 775점, 추도에서 1,759점, 낭도에서 962점, 목도에서 50점, 적금도에서 20점이 각각 발견되었다. 종류도 다양해 앞발을 들고 뒷발만으로 걷는 조각류, 육식공룡인 수각류, 목이 긴 초식공룡인 용각류 등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조각류 발자국이 전체의 81%에 달할 정도로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이어진 발자국들, 즉 보(步)행렬의 화석이 나왔는데, 연장성이 매우 좋은 길이 84m의 보행렬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공룡화석 이외에도 규화목, 식물화석, 연체동물 화석, 개형충, 무척추동물, 생흔 화석과 연흔, 건열 등의 교과서적인 퇴적구조들이 다량 발견되었다.

여수공룡화석지는 전남 및 경남 지역 해안의 이미 발견된 공룡화석지를 연결하고 일본과 중국 등을 연결하는 중생대 백악기의 범아시아 생태환경 복원이 가능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 남도조개더미

여산마을 북서쪽 소시포(새우양식장) 건너편에 있다. 예전에는 논밭이었으나, 대교 도로공사로 인해 묵전이 되었다. 조개더미의 동·서로는 해발 50m의 낮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조개더미의 두께는 약 1.5m 정도이다. 수습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과 짐승뼈 등이 수습되었다.

규모조개더미는 석호와 해안 사이에 위치하는 도라지밭이다. 방파제 공사로 인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조개더미의 두께는 얇은 편이다.



남도 조개더미유적 / 규모 조개더미 유적

3) 남도 목장



이리목장지도
- 허목, 1663년(현종 4)

조선시대의 여수에 목장이 있었던 곳을 대전회통 병전 구목제도(大典會通 兵典 廐牧制度)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興陽縣 - 道陽牧場 (흥양현 - 도양목장)

所里島, 安島, 多里島, 大頭里島, 小頭里島, 非兒島(소리도, 안도, 다리도, 대두리도, 소두리도, 비견도)

順天府 - 曲華牧場 (순천부 - 곡화목장)

突山牧場, 猫島場, 白也串場, 白也島場, 狼島, 今毛島, 諸里島, 盖島, 城頭串, 耳里島, 大花島, 小花島 (돌산목장, 묘도장, 백야곶장, 백야도장, 남도, 금모도, 제리도, 개도, 성두곶, 이리도, 대화도, 소화도)

화정면의 목장은 남도, 제리도, 개도, 이리도, 대화도, 소화도의 목장이 보인다. 이 중 남도와 이리도는 중복인 것 같다.

(1) 『여지도서(輿地圖書)』

숙종 27년(1701) ‘군수(軍需)를 보충할 수 있는 땅을 혁파한 후에 재정이 궁핍해졌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와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까지 펴낸 295개의 읍지 중 『여지도서』를 통해 볼 때 궁궐의 왕자방(王子房)에 속한 둔전과 목장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



여지도서 낭도

(2) 『곡화목개지급사례』

1871년 10월 발행한 『곡화목개지급사례』에 의하면 낭도에도 목장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낭도 목장은 규모가 20리로 말 9필과 곡초는 3,000몫이다.〉

(3) 『한국지리지총서(韓國地理誌叢書)』

〈낭도〉 마신당 1간 / 감관 1명 / 간양군부 1명 / 진부 2명 / 재산마 8필

4) 낭도봉수³⁾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311-1번지 일원의 북위 34° 36′ 41.36″ 동경 127° 33′ 37.47″ 해발 282.5m인 상산(上山) 정상부에 위치한다. 산정부에는 사방으로 해망이 가능한데 동북쪽으로 제5거 직봉의 2번째 봉수인 화양면 백야곶봉수(白也串烽燧)와 서쪽으로 고흥 우미산요망과 우각산요망 사이의 바다에서 가장 큰 섬이다.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봉수·요망유적) 기초학술조사』, 2019

고지도에 표기된 ‘일리도(日利島)’가 현재의 낭도(狼島)로 여겨지는데 『조선 후기 지방지도』의 「순천부지도(順天府地圖)」에는 해중의 일리도 산정부에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주위 해중에 상화도·사도가 인접하고 있다. 「순천고돌산진지도(順天古突山鎭地圖)」에는 해중의 일리도 산정부에 초가(草家)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부지도 일리도요망



둔병도에서 본 상산

낭도요망은 상산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요망은 원형의 석축으로 높이는 북서쪽 2.0m, 남동쪽 1.5m이며, 상부의 지름은 동서 3.8m, 남북 4.6m이다. 석축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벽돌처럼 잘 다듬어 반듯하게 모를 맞추어 정교하게 축조하였다. 남동쪽의 훼손이 심하며, 최근 남쪽 중앙부에는 요망의 상부에 오르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단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요망 상부 중앙에는 일제강점기 측량기점인 십자표시가 남아있다. 요망의 북서쪽으로 평탄한 지형에 석재들이 흩어져 있으며, 봉수군들의 주거지나 고사(庫舍)터로 추정된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백야곶봉수 6.7km, 조발도봉수 2.6km, 둔병요망 2.5km, 사도요망 2.5km, 고흥 우미산요망 7.3km, 고흥 우각산요망 6.9km, 백야도요망 7.0km, 상화도요망 4.0km, 하화도요망 6.0km이다.



연대 석축



연대 상부



연대 전경

마. 남도의 역사와 인물

1) 정암회 표류기⁴⁾

조선시대 남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정암회(鄭庵回)가 일본에 표류한 후 표류민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으며 돌아온 과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전라도 순천부 소라포면 남도(편집자주: 당시 여수는 순천부 소속)에 사는 정암회와 8명은 1791년 9월 29일 고기를 팔기 위해 돈 300냥과 쌀 10석, 유지 30동을 함께 싣고 강원도 평해를 향해 출발했다. 10월 4일 울산부 향도에 도착해 쌀 4석을 팔아 80냥을 벌었으나, 9일 점심때에 경상북도 장기현 포을천 앞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13일 새벽 어느 곳에 표착했는데 그곳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했다.

그곳은 일본의 시마네현 이즈모슈(出雲州) 간도군(神門郡) 고바다였다. 11월 15일 다시 나가사키(長崎)로 갔다가 다음 해 4월 5일 대마도를 통해 부산의 동래로 돌아왔다.

바. 남도의 오늘

1) 상산 등산로와 섬둘레길

남도 상산의 정상 해발고도는 280m로서 여산경로당에서 여산마을을 지나 산길의 오솔길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으며, 상산까지 약 2.2km로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다.

둘레길은 3개 코스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먼저 둘레1길은 남도중학교에서 출발해 남도방과제, 신선대, 천선대를 거쳐 산타바오거리까지 구간으로 50분 정도 소요된다. 둘레2길은 산타바오거리부터 장사금



남도 둘레길 안내판

4)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여수시사』, 2010.

해수욕장, 역기미삼거리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둘레3길은 역기미삼거리에서 규포선착장까지 40분 정도 소요된다.

2) '가고 싶은 섬' 남도

남도는 2015년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에 선정되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남도 게스트하우스”, “남도 밥상”, “남도 카페” 등을 만들었으며, 남도중학교 폐교 건물을 활용하여 캠핑시설을 마련하였다. 장사금 해변에 작은 도서관도 건설할 계획이다. 마을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마을 스토리북을 제작·판매한다.

규포마을에서는 어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섬 일주 산책로 18km에 코스를 개발하여 섬 도보여행의 1번지로 꾸미고 있다.



남도중 야외캠핑장



장사금해수욕장 가는길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식당

3. 섬 생활의 변천

가. 남도의 생업

남도는 행안부가 주관한 “찾아가고 싶은 섬”과 “전남의 가고 싶은 섬 1호”로 연거푸 선정되면서 인근의 다른 섬들에 비해 빠르게 개방되었다. 주변의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지만, 남도 주민의 절반 이상은 농업에만 종사한다. 대신 염소와 소, 닭 등의 가축 사육이 활발하다. 이는 농업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땅이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섬의 중앙에는 여산마을이 있고, 여산리를 중심으로 탐동까지는 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들판으로 되어있다. 여산에서 남도해수욕장과 장사금해수욕장을 경유하는 지역에도 농지가 분포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농지를 보유한 섬이다.



산타바오거리 북쪽 넓은 들판에 마늘농사



지게



호미와 낫



소쿠리

섬의 북쪽에 있는 규포에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상산이 있다. 규포는 이름의 유래와 같이 마을이 도장처럼 생겨서 아늑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상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논밭 등의 넓은 토지 확보가 가능했다.

1) 농축산업

(1) 밭농사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지만, 주변 섬과 고흥반도가 막아준다. 과거에는 여름철 농산물로 고구마와 감자를 주로 생산하였고, 겨울에는 보리를 주로 생산하였다. 남도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고, 감자는 “하지감자”라고 부른다.

겨울 주식이 고구마인 이 지역에서는 겨울 양식과 씨고구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절간으로 수매를 한다. 절간고구마(얇게 썰어서 볶아 말린 고구마)를 만드는 과정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겨울에 저장한 고구마 중에서 씨알이 좋고 싹눈이 나온 건강한 고구마를 골라 이른 봄에 씨고구마를 심는다. 초여름에 어느 정도의 싹이 나오면 그 싹을 잘라서 고구마를 심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심어 싹이 말라 버리지 않게 한다.

고구마가 자라는 동안에는 특별히 손이 가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할 일 없이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고구마 이랑 사이사이로 녹두, 팥, 깨 등을 심어서 중간에 수확하느라 오히려 바빠다. 더러는 여름에 시원한 찻국을 만들어 먹기 위해 물외(오이)를 심기도 했으며, 여유가 되면 늙은 물외는 씨를 파내고 된장에 박아서 장아찌를 만들어 겨울 밑반찬으로 쓰기도 했다. 가을이 되면 본격적인 고구마 수확에 들어가는데 수확하기 전에 고구마가 어느 정도 밀이 들면 먼저 고구마 순을 수확해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여유가 있으면 추석이나 명절, 제사 때 쓸 나물 준비를 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고구마 수확을 하려면 먼저 녁쿨 있는 고구마 순을 걷는다. 고구마 순을 걷어내고 앞에서 쟁기로 고구마 이랑을 갈면 뒤에서는 고구마를 줍고 흙에 묻히지 않도록 집어내기도 한다. 이 고구마를 한데 모아서 씨알이 좋고 병충해 피해가 없는 것을 골라 저장용으로 보관한다. 보관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간을 만든다. 고구마 하나하나를 절곡기에 넣어서 얇게 저민 것을 노지에 그대로 널어서 말리는데 이때는 온 들판이 하얀 분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다. 절간 고구마가 어느 정도 마르면 넓은 들판에서 하나씩 주워야 한다. 비가 올 것 같으면 학교에 간 자녀들까지 모두 조퇴를 하고 절간 걷이를 해야 했다. 이처럼 절간은 엄청난 일손을 필요로 했다. 이때는 부지깽이라도 거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섬을 빠져나가고 인구가 감소해서 손이 많이 가는 농사를 직접 지을 수도 없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 농사는 엄두도 못 낸다. 낭도의 고구마는 특히 화산지대의 사질토에서 해풍을 먹고 자라서 당도가 높아 절간을 하지 않고 생고구마로도 많이 팔렸다.



고구마밭 (2010)



절곡기



멧돼지 접근 방지를 위해 그물을 친 밭



마늘 말리기 / 백옥태씨 마늘 작업

남도주민들의 약 90%가 60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70대가 막내에 속할 정도로 경제활동 인구가 고령화되었다. 그래서 주 생산 농산물도 변화를 보였다. 손이 많이 가는 고구마와 심고 거두는 절차가 복잡했던 보리가 주 작물이던 시절도 끝나고, 심어놓고 수확할 때까지 크게 손이 가지 않는 작물로 변화되어 간다.

부작물로 무, 마늘, 유자, 도라지 등도 생산한다. 인근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방풍을 심듯이 남도에도 약간의 방풍을 생산하는 농가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늘 농사를 짓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출하하기 위해 밭과 집 담벼락에 마늘을 건조시키느라 온통 마늘 판이다.

여산마을 백옥태씨 집에는 휴일에 형제들이 고향을 찾아와 함께 마늘 출하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마늘의 판로와 수확량을 물어보았다.

“무조건 수협에 달려러 가요. 한 500망은 넘을 것어요.”

하며 가족들의 손이 더 분주하게 움직인다.

(2) 논농사

남도에는 논농사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가 없다. 현재 섬 전체를 둘러봐도 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논도 모두 밭으로 바뀌어 논농사를 직접 짓는 논은 없다. 논농사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예 논농사를 포기하고 그나마 있는 논도 밭농사로 전환해버렸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섬에는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또랑(도랑)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면 남도는 여산마을 뒷산에서부터 마을에 이르는 큰 또랑이 있어 논농사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또랑도 큰 비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다.

마을의 상수원을 연결하고 집집마다 샘을 파면서 물줄기가 끊겼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다. 여산마을에서 당산까지의 사이에 논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모두 밭으로 바뀌면서 논농사를 짓지 않는다.

나이 많은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쌀이 없어서 남도 처녀가 시집갈 때까지 쌀 서말을 못 먹었다고 하니 벼농사가 많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물이 제법 흘렀을 또랑

2) 어업

남도는 국가 어항으로 넓은 물량장과 선착장이 조성되어 있어 어업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름철에는 태풍의 직접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굴곡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라 변수도 있다.

만입부는 프랑크톤의 서식지인 사질해안이고, 돌출부는 암석해안으로 남쪽 돌출부 암석해안에서는 감성돔, 볼락, 농어 등의 낚시도 잘 된다.

봄과 여름에는 제주 난류가 북상하는 길목으로 난류성 어종이 많이 모여들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다. 기름진 사질해안에서 많은 생물이 서식하면서 어업이 성행하였다.

멸치잡이 어업도 발달하여 5~6월에는 멸치잡이 어장이 형성된다. 규포에는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사용되던 멸치 막사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다. 멸치막 주인이 낭장망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어업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여산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약 1.5Km 지점 해안에 탐고지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멸치 어장터로 변했다.



탐고지 멸치어장 / 탐고지 어선 / 새우양식장

10월엔 주꾸미 주낙을 한다. 김양식, 굴양식, 피조개양식, 새우양식, 해조류 등 양식업이 성행하면서 수산물 가공업도 발달하였다.

규포마을 해변은 수심이 얇고 갯벌에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꼬막이 많이 서식한다. 낭도에서 많이 나는 파래와 톳 등 해조류에는 식이섬유 알긴산이 풍부하여 노폐물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에 효과가 있다.

바다는 7개 반으로 나뉘서 관리한다. 옛날에는 9개 반이었는데 지금은 7개 반만 운영한다. 구역별로 약간씩 생산량 등이 차이가 있어서 반별로 제비뽑기로 몇 년에 한 번씩 구역을 정해 미역, 파래를 생산했다. 예전엔 조개, 바지락, 고동은 상시개방해서 마을주민들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게 했으나, 지금은 파래와 고동만 상시개방하고 바지락과 조개류를 별도로 관리한다.

한 달에 2~3일 정도 물이 많이 나는 날을 잡아 영을 터서 바지락을 캐 마을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마을기금을 만든다. 영을 트는 날은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파는데 손이 있는 사람만 파러 가는 경우가 많다. 작업에 참여해 바지락을 파면 바지락은 마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작업자에게 하루 일당으로 100,000원을 준다.

이 마을 전통에 청어와 대구 심리가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청어와 대구가 많이 잡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남도의 생활문화공간



남도는 주변 섬보다 크기가 커서 상주인구가 많았다. 본 마을인 여산마을과 규포마을이 있는데 여산마을 앞 표지석에는 175가구 307명이 산다고 하는데 이 표지석이 세워진 해의 기준이다.

1970년 초반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300명이 넘었고, 중학생 수도 140명에 육박했다. 남도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남도공립심상소학교로 시작되었다. 2001년 안일초등학교에 통합되어 여산분교가 되었다가 지금은 폐교되었다. 이 학교는 한때 학생은 1명인데 교직원이 4명이나 되었던 때가 있어 전국에서도 유명세를 탔다. 학생이 1명만 남았을 때 전학을 가려고 했지만, 마을주민들이 말려서 전학하지 않았고, 이후 6명의 학생이 더 들어와서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다. 초등학교는 폐교 후에 방치되어 있고, 남도중학교의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바뀌어 있다.



남도초



남도중 캠핑장

남도 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물이 맑다. 파도가 거의 없어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수욕장이다. 장사금해수욕장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조개껍데기가 많아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사도와 마주보고 있는 남동쪽 해안에는 공룡발자국 화석과 주상절리가 있어 자연지리 학습장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과 낚시터를 찾는 탐방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연륙연도교가 완공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



남도해수욕장



장사금해수욕장

섬마을의 바닷가 집들은 앞 담벼락이 지붕 끝이 닿게 쌓아서 앞 전경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바닷가에서는 태풍이 올 때 휘몰아치는 바람과 집안까지 치는 파도를 막기 위함이다.



민가



담장

여산마을 계섬(기섬) 낭도선착장 건너편에 움푹 들어간 곳을 안골(옹기골, 옹고지)이라 한다. 이곳에는 문어통발 단지가 플라스틱으로 대체되기 전 일제강점기 때까지 문어단지를 직접 구웠던 가마터가 있었다.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곳이다 보니 나이 많은 주민들도 옹기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옹기골



장어통발

여산마을 조형수⁵⁾씨가 안골에서 문어단지를 구웠다고 기억하였다.

“거기서는 옹구를 굽지는 않았어. 문어단지만 구웠지. 논골 흙이 좋아서 건너편 논골서 흙을 실어와 문어단지를 꾸었어.”

정주민구가 많아서 화정파출소 낭도치안센터, 낭도 보건진료소, 농협 낭도지소, 낭도중계민원처리소 등 행정기관들의 분소나 출장소도 설치되어 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여자경로당 등도 모두 갖춘 섬이다. 여산마을에서 봉수대까지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5) 조형수: 1932년생 함안조씨, 낭도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왔다.

교회는 여산과 규포 두 마을에 각각 있고, 마을주민들 80%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 2016년 여산교회 목사가 사망하자, 여산교회 교인들이 규포교회로 이적하겠다고 찾아왔다. 같은 교단 소속이고, 갈등도 없는데 교회를 옮기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 규포교회 명이복 목사는 교인들을 여산교회로 돌려보냈다. 그래도 남겠다는 몇 명만 2년이 지난 뒤에 받아 줬다고 한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 6월 10일 새벽 여산교회가 화재로 전소되었다.

규포교회 명이복 이장의 증언이다.

“불이, 각 창고 및 유리창으로 2m 이상 튀어 나오면서 붙어서 완전 전소되었다. 고흥119에서 와서 “이 교회 의자가 없었냐” 물더라. 아무 흔적이 없으니……

. 다 타고 판넬만 내려앉았으니까? 의자가 하나도 흔적이 없고 해 소방관들 하는 말이 자기들 이런 생활 몇십년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타

서 없어진 것은 처음이라더라. 작년 6월 10일에 불이 났는데 오래된 건물은 100% 누전이다. 7~8년 전에 옛날 교회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했는데 옛날 건물은 복잡하다. 리모델링하는 사람이 전선을 정리해서 차단기를 따로따로 달아서 정리해줘야 했다. 비온 뒤에 물이 새더니 3~4일 뒤에 불이 났다. 지금은 교육관이 옆에 있어 의자만 가지고 예배를 본다.”



명이복 이장 (사진 왼쪽)

현재 여산마을 이발소 앞에 땅을 매입하여 다시 교회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규포마을에는 규포분교가 폐교로 방치되어 있다. 바닷가에 마을회관이 위치하는데 마을주민이 몇 명 없어 마을회관을 이용하기보다 이장 집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규포마을로 들어오다 보면 진입도로에서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마을 중앙의 공터를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준비 중이다.

먼저 접시꽃을 종류별로 심어서 마을을 접시꽃 단지로 조성하여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추억 사진을 찍는 장소로 제공하고, 다시 찾게 만들고 싶어 한다.

마을주민들이 소득 창출원으로 접시꽃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 마을에 일할 젊은이들이 없어 최대한 일손이 적게 가는 작목을 택했다. 한번 심어놓으면 다시 자라 매년 볼 수 있고, 종자를 받아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뿌리 또한 약재로 사용되어 몇 해 지나면 뿌리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장점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접시꽃을 한자로 쓰면 마을 이름과 음이 같은 “규화(葵花)”이다.



마을 중앙 공터



접시꽃을 심은 공원

여산마을 진입로 초입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 쓰레기장이 있다. 이곳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오염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조망으로 둘러 임시 쓰레기 거치소를 만들어 놓았다. 고흥까지 연륙되면서 그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



쓰레기장 (자막포) / 쓰레기장 / 쓰레기 버리는 할머니



숫난샘(맨위 왼쪽) / 여산마을 우물과 집수정

섬마을은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갯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조달해 먹는 것도 큰 일과 중의 하나다. 섬 곳곳에 있는 샘들만 16개 정도이고, 간이상수도 시설도 2개소나 된다.

여산마을 중턱에 남도사람들이 치성을 드릴 때 사용했다는 숫난샘이 있다. 매년 정초에 우물을 다 퍼내고 도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샘은 “숫아난다”해서 숫남샘이라 불렀다고 하고, 한편으로 “선난샘(손남샘)”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규모 우물과 집수정

남도주조장으로 들어가서 조금 올라가면 여산4길에 20여 미터 간격으로 샘이 4개나 있다. 그중 1973년에 준공된 샘은 갈림길 중간에 있고 남도의 대표적인 큰 규모이다. 샘 몸통에 “깨끗한 정호는 여성의 자랑”이라는 문구가 재미있다. 지붕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바로 위로 올라가면 10여 미터 위쪽 여산4길 13-12번지 앞에 1986년 11월 28일 준공된 샘이 있다. 뚜껑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안쪽에 고사리 등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 현재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곧바로 10여 미터 올라가 13-18번지 옆에는 샘인지 집수정인지 알 수 없는 우물이 있다. 한쪽 턱이 깨진 채로 방치되고 입구에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여기서 10여 미터 올라가면 오른쪽에 마을 상수도 공동 관리 집수정과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다. 기계화되어 물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체계적인 시설이다. 마을 뒷산 안산에서 물을 끌어와서 현재 마을의 공동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 샘처럼 보이는 샘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20여 미터 올라가면 뚜껑이 덮여진 샘이 있다. 1983년 11월 25일 준공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이름이 먼저 새겨져 있다. 이 우물은 아직도 근처 두 집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파란물탱크



도로확장 공사로 없어진 노인정 앞 바닷가 집수시설

집집마다 지붕위에는 커다란 파란 물통들이 하나씩 있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으나 24시간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물이 공급될 때 받아두었다가 다음 물이 공급될 때까지 사용할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노인정 앞 바닷가에도 집수정으로 쓰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콘크리트 틀로 만든 네모난 구덩이가 몇 개 있다. 비록 지금은 도로확장 공사 때문에 없어졌지만, 남도에서 물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섬 지역에서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집수정 시설이 있고, 샘을 팔 수 있는 곳에는 샘을 파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했다.

남도주민들은 최근 고민이 크다. 섬이 개방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크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많기 때문이다.

섬 지역 탐방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섬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히 섬을 찾는 탐방객들은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가서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오기 때문에 섬 주민들도 탐방객을 반기지 않는다. 탐방객과 주민이 윈윈(win-win)이 되어야 함에도 끊임 없이 반목하게 하는 요인이다. 섬이 점점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마을소득도 증가할 것이다. 마을 농수산물을 직접 현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량도 허수가 생기지 않게 판매할 수 있고, 유통과정 없이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부단체와의 교류 등도 증가할 것이다. 주택이나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



선착장 임시식당 / 남도휴게소 / 마을카페 / 임시주차장 (시계 방향)

하지만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증가하고, 애써 지은 농작물을 장난으로 훼손하거나 도난 사례도 증가한다. 외지인들의 지나친 호기심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된다. 차량이 몰려들면서 마을의 교통이 혼잡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건축이나 토지 개발의 규제가 강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개방에 따른 이익이 일부 주민에게 돌아가던지 외부유출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긍정적인 변화는 좋지만, 부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로 전환할 것인지 등이 개방에 따른 고민이다.



‘집이 흔들려요. 차는 천천히’ 나무팻말 / 주차안내 현수막

다. 선박

선박은 섬 생활에서 교통수단이자, 생계유지 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도에서는 마을이 두 곳으로 여산마을의 어선의 현황은 1997년 말 기준으로 5ton 미만 동력선 77척과 무동력어선 13척이 등록되어 총 90척이 등록되었으나, 2020년 5월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5ton 이상 동력선 2척과 5ton 미만 동력선 22척으로 총 24척이 등록되었고, 무동력선은 등록되지 않았다. 1997년 말 기준대비 66척이 감척되어 73.3%의 감척 비율을 보였다.

규모마을의 어선 현황은 1997년 말 기준으로 5ton 미만 동력선 12척이 등록되었으나, 2020년 5월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5ton 미만 동력선 5척이 등록되어 있다. 1997년과 비교하면 7척이 감척되어 58.3%의 감척 비율을 보였다. 이는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인구 감소와 어업인의 노령화,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지속적인 노후 어선 감척 정책의 결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선어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이 감소하였다.



남도 여산마을 어선과 여산방파제



남도 규포마을 어선과 규포방파제

남도의 첫 여객선은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2년에 화정면 일대를 운항했던 정진호가 처음인 것으로 보이며, 이후 60년대에는 1961년 여진호와 1962년 조도호가 취항하여 운항하다가 1968년 대성호, 1970년에는 제6금어호가 주로 운항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는 1989년에 취항한 뉴시프린스호와 1995년에 취항한 청해호가 운항하였다.

이후 1999년 초에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는 화정면 일대 여객선의 항로가 일부 변경되면서 터미널에서 출항하는 백조호가 취항했다. 이후 해운선사가 변경되면서 지금의 태평양 1호(승선인원 77명)가 2013년 4월부터 출항하게 되었다.

특히 2005년에 화정면 백야도에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2013년부터는 백야도항에서 차량과 승객을 운송하는 태평양해운(주)의 대형카훼리 3호가 취항하였다. 이로 인해 섬에 차량이 수송됨에 따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이 증가할 때 잠시 운행하는 예비선인 태평양 3호도 취항하였다.

규포마을은 2013년부터 (주)태평양해운에서 취항한 태평양 1호(40ton급, 90명 정원)가 운항하였다. 2020년 2월 대교가 완전개통되면서 매주 2회 운항하던 것을 현재는 운항하지 않는다.



여수와 남도를 운행하는 태평양 1호



백야도항과 남도를 운행하는 대형카훼리3호

라. 낭도 주민들의 생애사

100년 도가의 전통, 낭도 젓샘 막걸리 강창훈 대표



강창훈 대표는 1955년생으로 낭도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랐다. 철들 무렵부터 부친은 배타리 여수로 나갔고, 가정은 어머니와 장남인 강창훈씨가 함께 도우며 꾸려나갔다. 당시에는 낭도에 좋은 농토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낭도에 있던 고흥 남열리 임씨들의 문중 산을 빌렸다. 고흥 남열리 임씨들의 조상이 낭도에 있던지 임씨 문중의 조상묘가 상산으로 가는 언덕에 있었고, 조상들의 시제를 모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문답이 낭도에 있었다. 낭도의 땅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남의 땅이었지만, 그나마 빌릴 수 있어서 손수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산을 빌리는 대가로 매년 임씨 문중에 시제 음식을 장만해 주었다.

부모님은 3남 3녀를 낳았는데 강창훈 대표의 바로 아래 여동생은 돌을 못 넘기고 사망하여 3남 2녀가 자랐다. 국민학교 5학년쯤에 강창훈씨 혼자 여수에 있던 고모집으로 옮겨서 중앙국민학교를 다녔다. 아버지의 여건이 나아졌던지 1년 뒤에는 가족 모두가 종포로 이주하여 살았다.

부친은 1930년생으로 삼양59호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서 생활여건은 많이 나아졌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수산전문대 양식과에 입학했다. 당시 양식 사업이 유행하면서 양식과의 인기가 좋을 때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에 소재한 냉동회사에 입사했는데 주로 피조개를 채묘하는 제조기사로 근무하였다.

냉동회사에 다니면서 고향 낭도 앞마을 관할 바다에도 피조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냉동회사에서는 마을 어촌계가 관할하는 지선을 해당 마을 어촌계와 협상하여 채취권을 확보하여 채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던 시기였다. 용기를 내서 마을 지선의 피조개 채취권 입찰에도 응모했지만, 정보력과 자금력이 큰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부친이 남도에 도가를 운영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주조장은 장자에게 물려 주려던 가업이었지만, 장자였던 큰아버지는 주조장을 물려받기엔 너무 바쁜 사람이었다. 여수 수산대 총장도 지냈던 큰아버지는 주조장을 꾸려나가기엔 여건이 맞지 않아 결국은 강창훈씨의 아버지가 가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당시 아버지는 선박 기관장을 하면서 모아 놓은 돈이 있어 봉산동에 집이 2채나 있었고, 군자동에도 집이 있었다. 아버지는 본래 주조장 사업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당시 돈벌이가 좋다는 목욕탕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계약까지 했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요청에 재산을 처분하고, 준비하던 사업을 접고 경영난에 처한 주조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1972년쯤 막걸리 도가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런대로 사업이 잘되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막걸리 파동을 겪게 되었다. 막걸리 파동이란 쌀 막걸리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소문이 돌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비싼 쌀을 소비하는 것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양곡관리법이란 법이 만들어지고, 쌀만으로 막걸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 막걸리 파동을 겪으면서 전국의 많은 주조장들이 문을 닫았다. 아버지의 주조장도 경영난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강창훈 대표 덕



남도막걸리 주조 설명 (2010)



막걸리 주조 도구

부친의 유고로 주조장을 누가 이어갈지 고민하다 당시 대학교 2년 재학 중이던 막냇동생이 학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창훈 사장의 젊은 시절도 순탄치만 않았다. 혈기왕성했던 학창시절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땅딸이 클럽>이니 <모스키토 클럽>이니 하면서 동년배 친구들과 거칠게 몰려다니던 치기어린 시절이었다. 아버지가 남도에서 주조장을 하던 시절엔 주조장에는 관심도 없었고, 개인 사업의 성공만을 꿈꾸었다. 냉동회사를 그만두고 대한클랙션이라는 심부름센터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였다.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주는 사업이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후 여수산단에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육체적으로는 무척 힘들던 시절을 보냈다. 여러 사정을 지켜보던 처남들의 주선으로 미평 주공아파트 앞에 '쌍둥이슈퍼'란 이름의 동네슈퍼를 운영하게 되었다. 본래 처남들이 차린 슈퍼마켓이었는데 처남이 대형마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물려받게 된 것이다. 슈퍼마켓을 인수하고 초기에는 운영이 잘 되었지만 얼마 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면서 소규모 슈퍼마켓은 장사가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슈퍼마켓을 접고 치킨집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 다니던 회사에서 포장/출하를 전담하는 회사의 소사장을 제안받았다.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내 회사를 가질 수도 있는 좋은 조건이라서 망설이던 차에 주조장을 이어가던 막냇동생에게서 도가를 인수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부친 사망 후 도가는 막내가 맡아서

운영해 온 터라 아무런 준비도 없을 때이다. 당시 어렵다며 2~3차례 사업자금도 제공했을 뿐더러 할아버지의 가업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급작스럽게 진행되다보니 당시 부인도 설득하지 못하고 남도로 복귀하여 도가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어려서 부터 장남인 강창훈 대표를 믿고 힘든 일을 함께 헤쳐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고향에 들어오니 주조장 사업과 함께 낙후된 고향마을을 위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 나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 2005년 마을 이장을 하면서부터 남도 개발과 마을 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섬 생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여건을 극복하고 여수시 문화해설사 교육도 마치고, 남도와 화정면 전문 문화해설사 역할도 하고 있다. 화정면 이장단 협의회장에 이어 2015년에는 ‘가고싶은 섬’으로 남도가 선정되도록 불철주야 발품을 팔아서 이루어내면서 남도에 둘레길도 조성하였다. 최근 ‘섬섬백리길’이란 이름으로 조발도, 둔병도, 남도, 적금도가 연륙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섬의 크기가 크고 볼거리가 많은 남도를 찾아오고 있다. 강창훈씨와 같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었다면 매일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도에서 무엇을 보고 갈 수 있었을까?

강창훈 씨의 ‘백년도가’ 주조장은 할아버지(강봉경) 대에서부터 존재해 왔다. 처음 할아버지가 세운 도가 이름이 옥정주조장이었다. 옥정면은 1914년에 화정면으로 바뀌었으니 적어도 1914년 이전에 도가를 운영했다는 뜻이다. 아버지(강인귀) 2대를 지나 3대째 이어져 왔고, 지금은 강창훈씨의 아들(강철호)까지 일을 돕고 있으니 4대째 전수되고 있는 셈이다.

남도막걸리의 전성기는 할아버지 대에서이다. “화정면은 물론 화양면과 고흥까지



남도막걸리 백년도가/
남도막걸리 광고

우리 술이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주로 불렸던 막걸리를 마시던 시기였으니 그 양도 엄청났었다.

육지와 연결된 뒤에 코로나19로 전국민의 이동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인파가 매일 섬을 찾고 있다. 덩달아 낭도의 젓샘 막걸리도 입소문을 타고 100년도가로 이름 붙인 술도가와 식당을 찾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북새통이다.

젓샘 막걸리란 이름은 공룡섬으로 유명한 이웃 사도에 전해오는 샘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물이 하도 좋아서 산모가 먹으면 젖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젓샘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젓샘 막걸리는 그 이름에서 가져오게 되었다.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에 낭도 젓샘 막걸리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섬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만찬주로 선정되었다. 강 대표는 “여수시를 통해서 전남도 섬의 날 만찬주로 우리 술로 국무총리님이 건배도 하실거란 소식을 듣고 무척 뿌듯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100년 전의 맛과 현재의 맛이 똑같다. 달지 않고 누룩향의 깊은 맛을 내는 특징이 있다.”고 낭도막걸리를 자랑하며, “낭도 심층수를 이용해 철분이 포함된 물인데다, 우리 밀을 발효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막걸리가 노란색을 띤다.”고 설명했다.

그는 “낭도 주조장이 약 105년의 전통의 주조장으로 전국에서도 오래된 양조장에 속하고, 현재 운영도 4대째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낭도막걸리 만찬주 현수막



남도 지명지도

4. 남도의 민속문화

가. 남도의 지명유래

1) 남도리

여산마을의 옛이름은 남도리다. 남도는 여산마을이 있는 섬이름으로 섬의 모양이 동물인 이리를 닮아서 유래된 이름으로 알려져 온다. 대동여지도가 편찬된 1861년까지도 남도는 이리도라 표기되었다.

이리의 발음도 조선 중기 석보상절(1447) 기록에 ‘(전략)~ 모던 상(象)과 사자(獅子)와 범과 일희와 곰과 ~(후략)’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리를 ‘일희’로 표기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는 1872년에 편찬된 순천부지도에서 일리도(日利島)의 표기로 이어지며, 비슷한 시기의 대동여지도에서는 이로도(伊老島)로 표기되고 있어 이리의 이름은 조선초기의 일희에서 후기에 이리로 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78년에 편찬된 목장지도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에서는 하나의 지도에 낭도(狼島)와 이리도(耳里島) 또는 이로도(伊老島)가 함께 표기되어서 낭도와 이리도를 혼용해 사용되다 보니 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작하면서 서로 다른 섬으로 그려 넣은 것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



마을유래 오류 표지 (낭도항 입구에 마을유래비에 여우를 닮아 낭도라고 했다는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임)

2) 여산마을

- 가장골<마을> : 여산마을 서북쪽에 있으며, 옛날 주민이 사망하였을 때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장지를 정하고 묘를 썼다하여 가장골로 불리오다 사람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고부터는 새로운 터란 뜻으로 신촌이라고 불린다.
- 답동<마을> : 여산마을회관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마을로서 논이 많은 들에 마을이 있다하여 답동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큰마을로 이주하였다.



답동



꼬막포

- 탐고지<마을> : 여산마을회관에서 서북쪽 약 1.7km 지점에 위치한 해안마을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멸치어장터로 사용하고 있다.
- 꼬막포(고막포)<개> : 여산마을회관 북쪽 약 0.5km 지점으로 수심이 얇고 갯벌이 좋아서 예로부터 참꼬막이 많이 서식하였다.
- 도낙포(도네기)<개> : 여산마을의 북쪽 해안으로 옛날에는 낙지가 많이 서식하였다.
- 드래곤피(들입곶)<해안> : 장사금해수욕장 아래쪽에 동쪽으로 튀어나온 해안으로 옛날 장어잡이 어선들이 '드래'라는 어망으로 장어를 잡았다고 한다.
- 모소금(모사구미) : 답동마을 남동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바위에 바닷물이 고여 소금이 되면 이 소금을 채취하여 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탐고지 멸치어장터 (2010)



탐고지



큰가는개



작은가는개 (새우양식장)



손난샘

- 바달개<개> : 여산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는 갯벌로서 해안이 넓은 밭처럼 반반하다고 붙여진 곳이다.
- 집뚜개 : 여산마을 동남쪽 약 500m 지점에 있는 능선으로 모양이 지붕같이 생겼다.
- 청석금<바위> : 여산마을 남쪽 약 1.2km 지점에 있는 바위로 색깔이 청색을 띠고 있다.
- 가는개<개> : 여산마을 서북쪽 약 1.2km 지점에 해안선이 2개 있는데 그중 큰개를 큰가는개(대세포→대시포), 작은개를 작은가는개(소세포→소시포)라고 한다.
- 논골<골짜기> : 답동마을 서남쪽 약 1.3km 지점으로 모래뚝 너머로 논이 많아 이곳을 논골이라고 불렀다.
- 손난샘골(숫난·선남샘골)<골짜기> : 여산마을 동쪽 약 2km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
- 안골<골짜기> : 여산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는 목장터였다는 설이 있으며, 계곡이 깊어 안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조선시대 허목의 목장지도(1678년)에 순천부 목장지도를 보면 낭도목장에는 말 암수 합쳐서 8필에 31명의 말을 키우는 목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큰골<골짜기> : 여산마을 북쪽 약 2km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매우 크다고 하여 큰골이라고 불렀다.
- 금굴<굴> : 여산마을 동쪽 약 1km 지점에 있는 굴로서 옛날에 금을 채취하였다고 전한다.
- 안고돈데<길> : 여산마을 동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해안길로서 큰바위를 안고 돌아간다고 한다.
- 장문앞<바위> : 여산마을 북서쪽 마을진입로에 도로가 길고 넓은 지점에 있는 평평한 넓은 바위이다.
- 고노리끝<바위> : 여산마을 서쪽 해안 약 800m 지점에 있는 평평하고 넓은 바위로 옛날이 고장에서 잡아온 고노리(생선)를 이 바위에서 건조하여 외지에 판매하였다고 한다.

- 큰사금<해안> : 여산마을 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너설해안으로 주변의 바위가 날카롭고, 반짝이는 금같은 것이 박혀있었다고 한다.
- 신선대<해안> : 여산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1.3km 지점에 있는 해안으로 신선이 살만한 곳이라 하여 신선대라고 하였다.
- 살지바<능선> : 여산마을 북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능선으로 흙이 길고, 기름진 땅이라고 한다.
- 강낭금<바위> : 여산마을 서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바위로 부근 밭에 강낭콩을 재배가 잘 됐다고 한다.
- 들입금<들> : 여산마을 동쪽 약 2km 지점에 있는 들로 해안 가까이 있다.
- 솔밭등<들> : 답동마을 동쪽 약 500m 지점에 있는 등으로 소나무가 많았다.
- 당집 : 여산마을 뒤 북동쪽에 위치하며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는 곳이다.
- 따순기미(따신기미) : 겨울에 따뜻하다고 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낭도에는 여산마을과 규포마을에 각각 있는데 규포마을은 마을 앞 서쪽 해안 위에 있고, 여산마을은 상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중간에 큰 소나무가 서 있는 곳에 있다.
- 낭도제방 : 여산마을 북서쪽 약 2km 지점에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모래등<해안> : 여산마을 북서쪽에 있는 해안에 모래가 많이 있다.
- 장사금<해안> : 여산마을회관 동쪽 약 2km 지점에 금같이 반짝이는 모래가 길게 펼쳐있다.
- 등대끝<해안> : 여산마을회관 동남쪽 약 2km 지점에 사도마을 쪽에는 송곳여가 있고, 여산마을쪽에는 중천여가 있어 크고 작은 선박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1965년 낭도등대가 설치되었다.



신선대



신선대 표지판



따순기미 소나무



고막포 해변



상산



기섬



납대도



살피도

- 이서나무끝<해안> : 여산마을 동북쪽 약 1km 지점에 있는 부리(끝이 뾰족한 부분)로 예전에는 이수나무(자루)가 많이 자생했다고 한다.
- 청룡끝<해안> : 여산마을회관 서쪽 약 500m 지점에 있는 부리로 용이 승천했던 곳이라고 전한다.
- 영바<바위> : 여산마을회관 약 1km 지점의 해안에 낭떠러지 바위가 험상궂게 생겼다고 한다.
- 창날<바위> : 여산마을 북서쪽 해안 끝에 있는 바위로, 창으로 찢어 피가 흐른 것 같이 생겼으며, 구멍이 뚫어져 있다.
- 상산<산> : 낭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는 약 280m이다. 조선시대 봉수가 설치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측량하던 기점에 십자표시가 남아 있다.
- 기섬(계섬)<섬> : 여산마을 앞에 있는 바다에 서식하는 계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불렀다. 현재는 여객선 접안시설로 부잔교가 설치되었다.
- 나무섬(목도)<섬> : 여산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섬에 나무가 많아 나무섬, 목도라 부른다.
- 납대도(납대기)<섬> : 여산마을회관에서 서남쪽 약 1.2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납작하게 생겨 납대기라고 부른다.
- 살피도<섬> : 여산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약 2.4km 지점, 낭도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임야나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살피돌을 닮아 살피도라 부른다.
- 싱판터 : 여산마을 동쪽 약 2km 지점에 있으며, 약 4만 평 면적의 평지가 있는데 싱을 치는 노인들의 놀이터라고 한다.
- 오돌래집터 : 옛날 오돌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해변 지역으로 살피도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규포마을

3) 규포마을

- 옷동네<마을> : 규포마을에서 큰길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아랫동네<마을> : 큰길 북쪽에 해변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다.
- 함네멧골<골짜기> : 규포마을 서남쪽 약 260m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옆에 할머니 묘가 있었다고 한다.
- 자갈밭<해안> : 규포마을의 북쪽에 해안에 돌이 많이 있는 너설이다.
- 분애논골<골짜기> : 규포마을에서 약 450m 지점에 있는 비렁으로 분애란 사람의 논이 있었다.
- 순애네밭<밭> : 규포마을의 남동쪽 약 150m 지점에 있는 밭 주인인 순애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 보리마당<터> : 규포마을회관 남쪽 약 50m 지점에 있는 마을 공동 시설지로 마을주민들이 이곳에 다 보릿단을 쌓아두고 타작을 하였다.
- 이수나무끝<후미> : 규포마을 서쪽 약 500m 지점에 이수나무가 있었는데 이수나무터의 좌측끝을 말한다.



샘밀

나. 남도의 설화와 민요

1) 남도의 구전노래 6)

(1) 자장가

남도에 전하는 자장가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거나, 아이가 깨서 칭얼댈 때 부르는 노래다.

자장 자장 어서 자자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살까
금을 주면 너를 살까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일가 간에 화목동이
동네방네 유신동이
태산같이 굳세거라
화해같이 깊고 깊어

유명천하 하여보자
잠도 자도 잘도 잔다
두둥 두둥 어허 두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오냐 자장 잠 잘잔다
남의 애기 개똥밭에
우리 애기 꽃방석에
곰게 곰게 잠 잘잔다
오냐 자장 오냐 자장
우리 애기 잠 잘잔다
달강 달강 우리 아가
서울 갔다 오다가

밤 한 되를 주어와서
등잔 밑에 두었더니
머리 검은 생쥐가
들낭달낭 다 까먹고
벌레 먹은 하나 남아
옹솔에다 삶을까나
가마솥에 삶아서
껍지랑은 개똥 주고
번대기는 쇠똥 주고
알맹이는 너랑 나랑
둘이 먹자

(2) 이별 노래

남도에 전하는 이별노래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이 죽음으로 이별하는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의 민요다.

길 아래 두 돌부처
굽고 벗고 마주서서
백 년을 기억하고

평생 이별 없건마는
만물영장 인생들은
한 번 왔다 할 일 없네

초로같이 사라지니
무상한 인생사야
일장춘몽이 아니냐

(3) 목화따는 처녀 노래

저건네라 목화밭에 목화따는 저 큰아가
느거머니 어대가고 니혼자만 목화따나
올어머니 팔자좋아 응장응장 배를 무어

팔도강산 구경갔고 언제사나 온다더마
늦접시다 죽순심어 죽순커서 왕대되어
왕대우에 꽃이피면 그적에야 온답니다

(4) 시집살이 노래

남도에는 시집살이 노래가 전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를 한탄하면서도 이겨내려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눈에 가면 가리원수
밭에 가면 바래기 원수
집에 가면 씨누이 원수
세 원수를 잡아다가
참실로 목을 매어
든 곳에 널고지나
강에 사는 강엽이는
한 살 묶어 어멈 잃고
두 살 묶어 아비 잃고
십오 살에 시집 간데
내 적다고 마다하니
양지 가서 양고사리
음지 가서 음고사리

주먹주먹 꺾어다가
아흠 솔에 갸불 넣어
열두 반상 차려놓고
시금시금 시어머니
시금시금 시아버지
셋별 동창 해 떠오는
삼각산의 내린 물에
어설설설 세수하고
진지조반 잡수시오
시어머니 하는 말이
아강아강 며늘아강
손 시럽다 들어오너라
발 시럽다 들어오너라

2) 남도의 설화

특별히 전해지는 전설이나 설화는 없다.

다. 남도의 세시풍속

1) 봄철의 세시풍속

봄철의 세시풍속은 2월에서 4월까지를 말한다. 봄철의 대표적인 세시명절은 2월 초하루와 3월의 삼짱날, 4월의 초파일이다.

〈2월 1일〉 2월 1일은 ‘이월 초하례’라고 부르는데, 이날은 각 가정에서 콩을 볶아 먹는다. 솔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후 그곳에 콩을 볶는데, 이때는 콩뿐만 아니라 오곡도 함께 볶아 먹는다. 콩을 볶으면서 ‘밭에 버리지 볶자, 버리지 볶자’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에 밭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은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다. 이날 내려온 영등할머니는 20일이 넘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날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영등할머니가 딸과 함께 내려오는 것으로 여긴다. 영등할머니 딸이 치마를 팔랑팔랑거리며 내려오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이다. 반대로 이날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고 하며 며느리와 함께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날은 방안 장롱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 이날 장롱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영등할머니가 올라가기 전까지 고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붉은 형짚을 만질 수도 없다. 따라서 이날은 반드시 장롱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입춘〉 입춘은 양력 2월 4일로 입춘이 되면 ‘입춘 대길 (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글귀를 써서 팔(八)자 형태로 집 대문이나 천장, 기둥에 붙였다. 그러나 지금은 부적같다고 하여 붙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삼짱날〉 삼짱날에는 삼이 두 번 겹치기 때문에 양기가 충만한 날이다. 이때는 강남에 갔던 제비가 오는 날이다. 이날 들에 나가 흰나비를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는 등 상복(喪服)을 입을 운이라 하여 좋지 않게 여긴다.

〈한식〉 한식은 동지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 별일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묘소 일을 하기도 한다.

〈초파일〉 4월 8일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절에 찾는다. 그러나 남도에는 절이 없어서 절에 갈 사람은 여수까지 나갔다고 한다. 보통 돈과 쌀 등을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이 잘되기를 빌고 연등을 단다.

2) 여름철의 세시풍속

여름철의 세시풍속은 5월에서 7월까지로 5월의 단오, 6월은 유두, 7월은 백중날을 들 수 있다.

〈단오〉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인데, 이날은 산과 들에 나는 온갖 잎들이 약이 된다고 하여 뜯어다가 달여먹는다.

〈유두〉 유두날 아침에 음식을 장만하여 밭에 나가 지석님께 수확량이 많기를 빈다. 또한, 눈에 나가서는 용수님께 수확량이 많기를 빈다.

〈복날〉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이를 삼복이라고 부른다. 이때는 날이 더워 몸이 허해지기 쉽다고 하였다. 그래서 몸보신을 하려고 단백질이 많은 닭이나 염소, 개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백중〉 백중 때에는 집에서 개떡을 만들어 제를 모신다.

3) 가을철의 세시풍속

가을의 세시풍속은 8월부터 10월까지 행해지는 의례이다. 가을의 세시는 수확의례가 중심이며, 대표적으로 팔월 추석, 구월 중구, 10월 시제를 들 수 있다.

〈추석〉 추석은 오늘날 설과 함께 2대 명절로 여겨지는 날로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추석 전에는 별초를



하는데, 이때 미리 성묘를 하기도 한다. 추석은 새로 나온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데, 장만하는 음식이나 방법은 설에 장만하는 음식과 유사하다. 이때는 특별히 송편을 만들어 차리는데,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는 팥이나 콩을 채워 넣는다. 아침 일찍 차례를 모신 후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고, 후에는 마을에 모여 술을 마시거나 윷놀이 등을 하면서 논다.

〈**올배심리**〉 올배심리는 그해 새로 나온 쌀을 조상님께 올리는 것을 말한다. 나라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것을 베어다가 찢 후 도구통에 넣고 찌어 쌀을 만든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 조상님께 올리는데, 이때는 전어 등을 사와 음식을 장만하여 성주와 조왕에 차려 놓는다. 이렇게 차린 음식은 이웃사람들을 불러 나눠 먹는다. 올배심리는 추석에 하기도 하지만 철이 빨라 추석이 일찍 든 경우에는 추석 후에 따로 날을 잡아 지내게 된다.

〈**구일지**〉 9월 9일은 ‘구일지(구일제)’라고 하여 술과 떡을 장만하여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다.



〈**시제**〉 10월에는 농사가 다 끝나고, 가장 곡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날을 받아 시제를 지냈다. 보통 시제를 모실 때는 문중에 있는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여기에서 나온 곡수를 가지고 제물을 장만한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요일에 날을 잡아 지내는데 자식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겨울철의 세시풍속

겨울철의 세시풍속은 11월부터 1월까지의 세시풍속을 말한다. 세시명절로는 11월의 동지, 1월의 설날과 보름의 명절을 들 수 있다.

〈청어·대구심리〉 청어와 대구는 주로 동짓달에 나오는데 이렇게 청어와 대구가 나올 때쯤 심리를 행한다. 청어와 대구는 자신이 직접 잡은 조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놔두었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고기를 잡지 않는 사람들은 배에서 직접 사거나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이때도 장을 봐서 간단하게 제물을 장만하는데 집안 형편에 따라 장만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차린 제물은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동지〉 동지에는 팔죽을 만들어 먹는데, 팔죽은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팥을 삶아 거른 물에 끓인다. 붉은 색깔이 귀신을 쫓은 축귀력이 있어 숟가락으로 마당이나 담장 등에 뿌리기도 한다. 이렇게 팔죽을 뿌리면 집안의 액운이 없어진다고 믿는다. 동지는 애기동지와 어른동지가 있는데, 애기동지는 음력 11월 초순에 동지가 들 때이고 어른동지는 중순에 들 때이다. 어른동지가 되어야 시절이 좋다고 여긴다. 요즘은 집 주변에 팔죽을 뿌리는 풍습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팔죽을 쑤어 먹는 풍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믐〉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집안청소를 하고, 음식장만을 한다. 이때 청소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는 불에 태운다. 또한, 이날 밤에는 불을 켜놓고 자지 않는데 이것을 수세(守歲)라고 한다. 선달그믐 때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해서 잠을 못 자게 하며, 또한 설을 쇠기 위해 각종 음식을 장만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저녁에는 ‘망중해’라 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밥을 지어 상을 차려놓는다.

〈설〉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정월 초하루’ 혹은 ‘설날’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삼가고 조심하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이다.

차례상은 초하루 아침에 차리는데 술, 떡국, 과일, 생선, 나물 등을 올린다. 특히 떡국을 올리는 이유는 ‘애원 없이 살아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올리는 떡국은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조상 숫자만큼 올리게 된다. 또한, 지양상과 성주상을 차리게 되며 특히 차례상 밑에는 ‘구신상(귀신상)’이라 하여 따로 작은 상을 차려놓는다.

떡국에는 석화(굴)를 넣기도 하고,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는다. 떡은 떡매로 쳐서 만드는데, 만든 후 약간 굳혀야 썰기가 편하기 때문에 설을 쇠기 며칠 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지금은 방앗간에서 만들어 오거나 만들어진 떡을 사기도 한다.

술은 청주를 사용하는데, 보통 집에서 만들어 사용한다.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누룩과 술밥을 만든다. 술밥은 꼬두밥을 찌서 만드는데, 꼬두밥에 누룩을 섞어 큰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담은 항아리를 따뜻한 아랫목에 놓아두면 일주일 정도 지나 술이 만들어진다. 술이 만들어지면 용수를 담겨 그 안에 담긴 맑은 술을 제주로 사용한다. 술밥을 채에 놓고 물을 부어주면 막걸리가 되는데, 이는 설에 집에 세배를 온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쓰인다.

콩나물은 시루에 기르는데, 바닥에 대야를 깔고 그 위에 나무로 삼발이를 만든 후 시루를 놓는다. 시루 안에는 삼베를 깔아 구멍을 막은 후 그 위에 콩을 놓아두고 일주일 정도 물을 뿌려주면 콩나물이 자란다.



새벽이 되면 떡국으로 상을 차려 차례를 모시게 된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차례로 세배를 올린다. 세배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과자나 꽃감 등을 주며, 어른들은 음식과 막걸리를 대접한다.

설날에는 설빔이라고 하여 새 옷을 갈아입는다. 설빔을 한 뒤 차례를 지낸다. 설빔은 베를 짜서 만들어 주는데, 보통 하루에 1벌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옷 중에서 소매부분에 물을 들인 옷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를 ‘까치옷’이라고 한다.

세배가 끝나면 성묘를 가고, 오후부터는 마을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과자나 꽃감 등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음식과 막걸리를 대접한다. 그러나 상주(喪主)는 초닷새 안까지는 남의 집에 가지 않으며 외출을 삼가야 한다.

설에 하는 놀이로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두 모여 윷놀이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남자아이들은 연날리기, 제기차기를 하였다.

〈정월 대보름〉 음력 정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 한다. 14일 날 밤에 상을 차리는데, 이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오탁밥을 차린다. 오탁밥에는 쌀, 수수, 조, 팥 등을 넣어 만든 밥을 말하는데, 이 외에도 고사리, 콩나물, 고사리 등 다양한 나물들을 차린다. 오탁밥은 해우(김)

에 싸서 쌀 왕겨 속이나 향아리 속에 넣어두는데 보름날 아침이 되면 찾아서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14일 밤에는 언덕에 불을 지르면서 노는데 이를 쥐불놀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횃불을 돌리면서 논다.



또한, 14일 밤에 커다란 간짓대를 가지고 뒤안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두드리는데, 이 때 ‘웃넙(윗넙) 새는 우그(위로)로 가고, 아랫넙 새는 아래로 가고 우리집 곡식(곡식)밭에 안치 마라’라고 외치는데, 이렇게 하면 그해 자신들의 농작물이 새(鳥)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여긴다.

보름에는 아침 일찍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 대신 ‘너더우’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 ‘더우 풀기’라고 한다. 이렇게 더위를 팔면 그해 여름 더위를 타지 않고 여름을 날 수 있다고 여긴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 집으로 바구니를 들고서 밥을 얻으러 다닌다. 이렇게 얻어온 밥을 도구통 위에 놓고 앉아 먹는데, 이렇게 하면 그해에는 아이들 몸이 좋아지고 건강하다고 여긴다. 보름에는 보통 널을 뛰면서 노는데, 이렇게 놀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 나무등걸에 발을 찢리지 않는다고 여긴다.

보름날 밤에는 ‘새내기(사내기) 몰아내자’고 하여 짚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을 가지고 집 안 뒤로 끌고 다니다가 이를 마을 앞 물가에 내다 버린다. 이렇게 하면 그해 자신의 집에 나쁜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정초 속신〉 정초에 마을에 계시는 유식한 어른들이나 한학자분들을 찾아가 그해 운을 보았다. 그해 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맥이를 하여야 한다. 정초에는 일진을 봐서 손이 있는 곳을 가려 조심하여야 한다. 보통 1일과 2일은 동쪽에 3일과 4일에는 서쪽에 손이 있다. 또한, 5일과 6일은 남쪽에, 7일과 8일은 북쪽에 손이 있다. 대신에 9일과 10일에는 손이 없는 날이다. 따라서 손이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옮기거나 일을 할 때 조심하여야 한다.

〈공달〉 공달은 계절과 음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한 달로서 탈이 없는 달이다. ‘윤달’이라고도 불리며 이달은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는 달로 4년마다 있다. 이때는 짐수리, 이사, 수의 장만 등을 하고, 대신에 결혼은 하지 않는다.

5) 낭도의 달집태우기와 가장놀이 7)



달집태우기

낭도에서는 50여년 전까지 정월 보름에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가장놀이를 하였다. 서남해지역에서는 정월 보름에 달집태우기를 할 때 농악대의 잡색들이 가면을 착용하거나 가장을 하면서 신명나게 축제판을 벌인다. 낭도의 경우 가장의 풍습이 강해서 달집태우기를 할 때 가장을 한 사람들만 판

에 들어올 두 있도록 하였다.

옛날 낭도의 달집태우기에 참가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성역할을 바꾸고 나왔다. 여자는 남장을 하고, 남자는 여장을 하고 참가했다. 여자는 갓을 쓰고 남자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와 달집을 태우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다. 당시에는 여산마을 한 곳에 만도 350호 1,000여 명이 살았으니 그 풍경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이 카니발은 낭도 처녀총각들이 짝을 맺는 연애의 시간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해방구였던 것이다. 평상시 여자라 수줍어하던 처녀들도 이날은 남자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총각에게 구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남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놀이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남녀가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는 ‘산다이’판이 그러하고, 신안의 강강술래가 그러하다. 특히 신안 지역에서는 남녀가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고, 여성이 정표로 손수건을 건네주며 사랑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낭도의 가장놀이는 서남해 민속놀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낭도민속보존회에서 가장놀이를 부활시켜 진행하였으나, 참여인원과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7) <http://www.pressian.com>. 강계윤, 백년전통 막걸리 익어가는 섬에서 하룻밤, 2015.

6) 남도의 초분⁸⁾

장례(葬禮)는 시신의 처리와 관련된 의례 행위로, 시대와 지역, 그리고 사회적 특성 등에 따라 토장(土葬), 풍장(風葬), 화장(火葬), 수장(水葬) 등 다양하지만, 죽은 사람의 뼈를 숭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지금도 이러한 의식은 매우 일반적인 형상이다. 이러한 다양한 장례 제도(制度) 중에서 이중장제(二重葬制 또는 複葬制)는 시신을 땅에 바로 매장(埋葬)하지 않고, 가장(假葬)인 일차장(一次葬)에서 육신을 완전히 썩혀 육탈(肉脫)시킨 후 본장(本葬)인 이차장(二次葬)에서 유골을 깨끗이 처리하여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중장제의 모습을 초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초분(草墳), 초빈(草殯), 외빈(外殯), 고름장, 구토, 쇠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초분을 흔히 한자로 ‘草墳’이라고 쓰는 것은 일차장 때 대개 짚으로 이엉을 엮어 덮는데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초분이 일반 묘제와 다른 점은 시신을 땅에 바로 묻는가 아니면 초분에 안치하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초분을 만드는 이유는 보통 생송장이 선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자손들과의 운대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초분은 먼저 땅에 돌을 깔아 적당한 높이로 만든 다음 그 위에 관을 올리고 그 주위를 이엉으로 덮은 후 용마름을 해 정리한다. 멀리서 보면 마치 초가집처럼 생겼다. 그 위를 밧줄로 묶어 비바람에 용마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맨다. 이렇게 초분을 만든 후 매년 이엉이나 용마름을 새로 해 만들어 올리는데, 초분으로만 만들었을 뿐 그와 관련된 행위는 매장 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

남도에서는 이렇게 만든 것을 ‘초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정월에 죽었거나, 죽은 사람의 운대가 맞지 않거나 혹은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경우에 만든다.

남도에 있었던 초빈은 이재O(남, 1923년생)씨의 것인데, 이재O분이 돌아가셨을 당시 그 어머니의 시신이 초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분도 초분을 만들었다. 보통 초분은 10여 년 정도 지나면 이장을 해야 하는데, 이분은 중간에 운대가 잘 맞지 않아 한동안 초분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2015년에 후손이 이장하였다.



초분 (금오도)

8) About 전남의섬 남도 <http://islands.jeonnam.go.kr>.

7) 가정신앙 9)

(1) 성주

성주는 집을 이루는 신으로 한 집안에서 가장 큰 신으로 예전에는 집집마다 모두 모셨다. 그래서 상량을 하거나, 낙성할 때 혹은 이사할 때 성주를 제일 먼저 모셨다. 여산리에서 성주는 ‘성주단지’라 칭하여 대청마루(마리 혹은 청)에 큰 항아리를 신체로 모셨다. 그 항아리 안에는 나락을 가득 담고, 그 위를 흰 백지로 덮은 다음 뚜껑을 덮어둔다. 그 옆에 원새끼를 꼬아 묶는다. 집안에 따라서는 나락 대신 보리쌀을 넣어 두는 곳도 있었다.

이 성주단지 안에 있는 나락은 1년에 한 번씩 바꾸어 주었는데, 그 해 첫 수확을 한 나락을 담았다. 그리고 그 전에 담겨있던 나락을 가지고 가족끼리만 밥을 해 먹었다. 그런데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출산이 있을 경우 이것을 덮어버리고 해 먹지 않는다. 이것을 먹을 때에도 집안에 운대가 좋을 때 먹으며, 집안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초상난 곳에 다녀오거나 아이 낳은 곳에 다녀온 사람은 먹지 않는다.



성주단지
(출처 :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todeka/8772062>)

(2) 지앙

지앙은 큰방에 모시는데, 이것을 ‘지앙단지’라고 부른다. 지앙단지는 큰방 윗목 한쪽 구석에 나무판자로 선반을 맨 후 그 위에다 작은 단지를 놓아 신체로 모신다. 이는 자손이 잘 되도록 모시는 것인데, 쌀이나 천조각 등을 넣어두는데, 집안에 따라 넣어두는 물건이 다르다고 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무명베 끝부분을 잘라 넣어 두기도 한다. 작은 단지 안에 쌀이나 천조각을 넣은 후 한지로 덮고 원새끼를 꼬아 둘러 둔다. 안에 있는 쌀은 몇 년이고 그대로 놔둔다. 계속 뇌둘 경우 탕이 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거라 하여 이럴 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지앙단지
(출처 : 한민족백과사전)

9) <http://islands.jeonnam.go.kr> About 전남의 섬 낭도

(3) 삼신

삼신은 보통 지양과 비슷한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경우 ‘삼시랑상’이라 하여 삼신을 모시는데, 아이를 낳은 세이레, 생일, 명절 때 모셔진다. 산모가 애를 낳은 그때부터 세이레나 일곱이레 동안 이레마다 삼신을 안방(산모가 있는 방) 윗목에 모신다.

삼신을 모시는 형태는 구체적인 신체 없이, 안방 윗목에 삼신상을 차려모신다.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빌면서 삼신상을 차리는데, 먼저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상을 놓으며, 상에는 물, 미역, 쌀을 놓는다. 이 삼신상은 사흘이 지나면 치워버리지만 일주일 후에 상을 치우기도 한다. 그리고 이레마다 세이레 혹은 일곱이레 동안 삼신상을 차리는데, 물 미역국, 밥을 차려 놓으며, 삼신에게 올리고 나서 나중에 산모가 그 음식을 먹는다.

(4) 조왕

조왕은 부엌을 지키는 신인데, 부엌에 조왕을 모셔 놓는 단지를 ‘조왕단지’라고 부른다. 조왕단지는 부엌에 있는 가마솥 위나 부뚜막 위에 종발이(중발)를 놓고 이를 신체로 모신다. 이 종발이에는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새벽에 길어온 물을 떠서 모시는데, 이는 집안이 좋거나 자손이 좋아지라고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부엌에서 조왕을 모시는 것을 ‘조왕 공 들인다’고 한다. 새벽 일찍 새로 물을 갈아주는 것은 그만큼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조왕단지
(출처: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todeka/8772062>)

(5) 칠성

칠성은 장독대에 있는 신을 말한다. 이곳은 평상시에 신을 모신 곳이 아니라 집안 사람 중에서 멀리 길 떠난 사람이 있는 경우 모시는데, 작은 중발에 물을 떠다가 비손을 한다. 이때 물은 새벽에 새로 길어온 물을 사용하며 칠성님께 비손하는 것이다.

(6) 철룽

철룽신은 뒤안(뒷간)에 있는 신으로 특별히 모셔지는 신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몸이 아프면 철룽에 물건을 잘못 놔서 아픈 것이라 하여 뒤안을 청소하기도 한다.

(7) 문신

문신은 방문 앞에 모셔지는 신으로 특별한 제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액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한다고 믿는다. 주로 방문 앞에 가시나무를 걸어두는데, 이를 여산리에서는 ‘병구나무’라고 하며, 이 병구나무 가지를 잘라 방문 앞에 걸어 둔다.

(8) 업

업이란 그 집안의 재산을 모아주는 신인데 이 신들은 주로 터에 생긴 모양을 보고 동물에 비유해서 업신을 섬긴다. 또는 직접 구렁이나 두꺼비 등의 동물을 신의 예우를 해주며 보호해 준다. 집안이 망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업이 보이는데, 업이 보일 경우 밥을 해 바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비손한다. 만약 업이 나간 경우에는 그 집안이 망한다고 믿는다.

8) 뱃고사¹⁰⁾

(1) 그믐 및 보름고사

배를 가진 선주들은 매월 그믐과 보름에 뱃고사를 모신다. 이때 제물은 선주 집에서 장만하고 제주는 선주가 된다.

선달그믐에는 밤에 선주집에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배에 올라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은 돼지머리는 꼭 준비한다. 준비한 제물을 선원들과 함께 배의 이물과 선장실(이곳에 배선왕이 있다)에 차리고 이곳에 제를 모신다.

배서낭은 배의 주신(主神)이다. 배를 관장하여 바다에서 배 사고를 막아주고 선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풍어를 주는 신이다. 배서낭의 신체는 주로 기관실에 모셔놓는데 한지에 북어를 묶은 것, 직사각형으로 접은 한지에 삼색실로 묶어놓은 것, 여자의 화장도구 등이 있다. 서해안에서는 신체를 모시지 않는 경우 기폭에 상(上)자를 쓴 서낭기를 중요하게 위한다. 배서낭은 대부분 여신인데, 이는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이 여신인 것과 상통한다. 신체는 별신굿을 하거나 뱃고사를 모실 때마다 새것으로 바꾼다.

보름고사는 보통 당산제를 모신 후 모시게 되는데, 그믐 제사처럼 선주 집에서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배 위에서 모시게 된다.

10) <http://islands.jeonnam.go.kr> About 전남의 섬 낭도

(2) 출항고사

출항고사는 고기를 잡기 위해 출항할 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그믐고사나 보름고사와는 달리 배에서 화장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여 차린다. 화장은 뱃일하는 선원 중에서 주로 허드렛 일이나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선주 집에서 장을 보아 배 위에 올려주면 화장이 배에 있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이렇게 장만한 음식을 배의 이물과 선장실 등에 차려 놓고 선주가 간단한 술과 함께 제를 모시게 된다. 이렇게 한 후 장만한 음식은 ‘고사밥’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고기를 잡기 위해 출항하는 출항고사 외에도 고기가 잘 잡히지 않거나 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경우 따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를 ‘부정 처낸다’고 하는데, 배에 귀신이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깃대에 불을 붙여 배 밑바닥을 지지듯 지나간다. 이렇게 한 후 깃대를 바다에 던지는데, 깃대가 바로 꺼지지 않고 천천히 꺼지면 재수가 좋고, 반대로 바다에서 바로 꺼져버리면 재수가 없다고 여긴다.



뱃고사 (여수)

라. 남도의 신앙

1) 여산리 당산제

남도의 여산마을에서는 음력 1월 14일 밤에 당산제(당제)를 모신다. 당산제를 모시는 장소는 마을의 뒤쪽 중간에 위치한 당집이다. 당집은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졌으며 기와를 얹은 형태의 3칸짜리 집이다. 예전에는 전통 기와 집이었다고 하나 시멘트 블록으로 고쳐 지었다. 고친 시기에 대해서는 제보자



1990년대 여산마을 당제 (화정면지)

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약 1990년대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당의 주위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큰방은 당산신을 모시는 곳이고, 그 옆의 작은 방은 당주가 거처하는 곳이며, 뒤편은 부엌이다.

이 마을에서 모시는 당산신은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인데, 신체(神體)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제당에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라고 적은 위패만 모셔놓았을 뿐이다. 이 당집을 다른 이름으로는 상당(上堂)이라 하는데 하당(下堂)은 마을 중간에 있는 당산나무로 예전에는 두 곳 모두 제를 모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에서만 모셨다.



당림 2008 / 당집외부 / 당집 내부 / 위패 (시계방향)

당산제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제관(祭冠)을 선정한다. 여산마을에서 당산제를 모시는 제관을 당주라고 부른다. 당주는 보통 정월 초순경에 마을 회의에서 선출하는데, 생기복덕을 봐서 3명을 선출한다. 당주는 한 해 동안 집안에 초상(初喪)이나 출산(出産)이 없는 사람 중에서 운대가 맞는 사람들을 중에서 뽑는다. 당주로 선출된 사람은 사망, 각시,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남자들이다.

당주로 선출되면 제를 지내기 전까지 당집에 올라 5일 정도 근신을 하는데, 번거로워 14일에 당집에 올랐다고 한다. 당주는 대소변을 보면 새로 옷을 갈아입어야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옷 세 벌과 신발 세 켤레를 각각 준비하여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선정된 당주는 조상이 난 집에 조문을 갈 수도 없으며, 개고기를 먹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금기는 제를 지내고 난 후에도 세 달 정도 더 근신하여야 한다.

당주로 선정이 되면 당집과 당주집에 각각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놓는다. 금줄은 자신의 집에서 농사 지은 짚을 이용해 원새끼로 꼬아 창호지를 붙인다. 황토는 마을의 깨끗한 곳에서 떠다가 당주가 직접 집안이나 당집 앞에 군데군데 떠 놓는다.

또한, 마을사람들도 자신들의 집 앞에 황토를 떠다가 깔아 놓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 가운데 위치한 당산나무와 벽수, 그리고 짐대에도 각각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았다고 하나, 40여 년 전에 벽수와 짐대가 없어지면서 당집과 당주집에만 금줄을 쳤다.

이렇게 쳐 놓은 금줄은 한 해 동안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둔다. 그 해 놔둔 금줄이 그 다음해까지 있을 때에는 그 다음해에 당집 청소를 하면서 걷어다 불에 태운다.

당제에 사용할 제물(祭物)은 여수장에 가서 사오는데, 보통 당주 한 사람만 간다. 이때는 꼭 닭 한 마리를 사고 그 외에 명태, 사과, 배, 대추, 밤, 쌀 등을 사온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을 공동기금을 사용하며, 음식값은 깎지 않는다. 이렇게 사온 제물은 당집에 보관한다. 당산제를 모실 때 사용하는 제기(祭器)는 마을에서 구입한 것을 당집에 보관해 놓고 사용한다.

제당은 마을의 동쪽 산 중간에 있으며, 지은 지 100년 정도 되었다. 제당의 주위에는 오래된 해송들이 둘러져 있고, 다시 담으로 제당을 보호하고 있다. 제당은 총 3칸으로 정면의 큰방은 신을 모시는 곳, 그 옆의 작은 방은 당주 2명의 거처이며, 뒤편의 방은 부엌이다.

신체는 없고, 제당에 ‘당산(堂山) 할아버지’, ‘당산(堂山)할머니’라고 적힌 위패만 모셔져 있다. 위패는 약 30년 전에 다시 쓴 것이라고 한다.

제당 안에는 당을 청소할 청소도구부터 제기 등의 각종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제당 안에 있는 부엌에서 장만한다. 예전에는 입에 창호지를 물고 정성스레 모든 음식을

장만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당주 집에서 보통 음식을 장만하고 당집에서는 밥만 해놓는다고 한다. 제물을 장만할 때 사용하는 물은 당샘에서 길러와 쓰는데, 당집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 나온 물로 오로지 당산제를 지낼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당제에 사용할 제주(祭酒)는 막걸리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가게에서 산 소주를 사용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당샘으로 가서 목욕재계한 후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제의 시간을 기다린다.

당산제를 지내는 날이 가까워지면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마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마을의 빨래 등도 모두 걷어 놓아야 한다.

1월 14일 밤이 되면 제를 모실 준비를 해 놓았다가 자시(子時)가 되면 제를 시작한다. 당집 가운데 있는 방에서 음식을 차리는데, 제물을 차리고 메 2그릇, 국 2그릇, 수저 2벌을 차린 후 초에 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제사 의례는 일반 유교식 의례를 따르는데, 절을 올리고 나면 “당산님 마을에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빕니다.”라는 내용의 독축을 한다. 그러나 축문은 없어졌고, 산신제의 축문을 따라 지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00 0月 00朔 00日 00
 幼學 000 敢昭告于
 당산할아버지 神位,
 당산할머니 神位
 神其保佑 禱無後艱 謹以酒果 祗薦于神尚
 饗



산물

이렇게 독축을 한 후 예전에는 분축을 하고 소지를 올렸으나, 후에는 분축도 하지 않고 소지도 올리지 않는다. 제가 끝나고 나면 깨끗한 종이에 음식을 조금씩 싸서 제당 오른편 깨끗한 곳에 두는데, 이는 ‘산물’이라고 하여 잡귀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다.

그리고 제관은 닭 머리와 밥 두 그릇을 들고 당집 뒤편의 터에 가서 묻는다. 이곳에는 큰 돌이 놓여 있는데, 매년 같은 장소에 묻는다. 닭 머리와 밥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돌을 들쳐낸 다음 한지를 깔고 그 위에 음식을 놓는다. 그런 후 그 위에 흙을 깔고 돌로 다시 덮어 놓는다. 다음 해 당산제를 모실 때 그 전해에 묻었던 음식들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면 마을에 좋은 일이 있고, 검은색을 띠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당산제장에서 제가 끝나면 당주는 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징을 세 번 올린다. 이 소리를 마을에서 듣고 주민들이 제사가 끝났음을 알았다는 의미로 마을에서 징을 쳐준다. 그런 다음 마을회관에 모여 있던 매투꾼들이 조용히 제장을 향해 올라간다.

제장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매투꾼들은 제당에 있는 당주 앞에서 신명나게 굿을 치고, 당주는 제물로 장만한 닭으로 죽을 썬서 매투꾼들을 대접한다. 음식 대접을 받은 후 다시 한번 매투를 올리면서 제당을 돈다. 이렇게 굿을 치면서 당주와 매투꾼들은 마을로 내려온다.

돌아오는 도중에 샘을 돌면서 샘굿을 쳐주고, 마을로 들어오면 당주집에서 아침을 먹거나 제사에서 남은 제물로 음복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십 년 전까지 이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 두 군데에 나무 벽수가 있었고, 마을 앞에 짐대가 서 있었다.

벽수(장승)는 마을 입구 두 군데에 양쪽으로 남녀 두 개씩 서 있었는데, 소나무로 만든 것이다. 소나무를 베어다 2m 정도의 크기로 만드는데 눈, 코, 입 등을 조각하였다. 이 벽수에는 당산제를 모실 때 금줄을 쳐 놓는데, 여기에는 따로 제물을 장만하지는 않고 정성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자신의 집에서 장만한 제물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으로 제를 모신다.

또한, 마을 앞 해변가에 짐대(숫대)도 있었는데, 장대 위에 오리를 조각하여 올려놓은 것이다. 이곳에도 금줄을 치고 벽수와 마찬가지로 정성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으로 간단한 제를 올렸다.

이러한 벽수와 짐대는 수십여 년 전에 썩어서 없어졌는데,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 만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매투꾼들은 굿을 친다. 이때는 먼저 갯가에 가서 굿을 치고, 그 후에 샘에 가서 친다. 그런 다음 마을 중앙에 있는 하당에서 굿을 치고 당주집에 가서 또 굿을 쳐준다. 이렇게 굿을 친 후에 마을 사람들의 집을 돌며 마당밧기를 해준다.

이렇게 마당밧기를 하다가 오후에 썰물이 되면 헌식을 하기 위해 마을 앞 갯가에 매투꾼들과 당주가 모인다. 헌식에 쓰이는 제물은 마을의 한 집에서 보리밥을 한 솥 해가지고 나와 그것을 짚 위에 부어 놓는다. 그리고 나물, 명태포, 메밀묵 등으로 간단한 상을 차린다.

제물이 상위에 모두 차려지면 당주가 나와서 용왕님께 절을 하는데, 후에는 제물은 차리지만 절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매투를 치면서 바다를 향해 인사를 한다. 이때 ‘입성구’라 하여 “모든 귀신은 물러가라. 잡귀들은 물러가라.”라는 말을 바다를 향해 외친다. 그리고 한바탕 굿을 친다. 헌식이 끝나면 모든 제의 절차는 끝난다. 이후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당밧기를 계속한다.

매구를 칠 때는 팽과리, 징, 장구, 소구, 벽구(북)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쫄쫄이라고 하여 여장 남자와 농부로 분장한 농부, 대포수 등이 함께 다닌다.

마당밧기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 먼저 마당, 부엌, 뒀안 등으로 순으로 곳을 쳐준다. 이때 주인은 상에 술과 쌀, 돈, 물 등을 차리고 사람에게 따라 촛불을 켜놓고 비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차려진 것들은 걷어다가 매구꾼들의 신발을 사주거나 새로 풍물을 장만하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 먹기도 한다.

마당밧기가 끝나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모이는데, 이때 마을 총회가 열리고 당산제에 대한 결산을 하기도 한다.

낭도는 마을주민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다. 때문에 당산제를 지내는 것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의 자체를 중단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소수의 마을사람들은 예부터 지내오고 있는 당산제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당산제가 전보다 간소화가 되어도 계속 모시자고 주장했다. 2012년 마을 총회에서 당산제를 마을 공동 행사로 모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이후에는 ‘낭도민속보존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비용을 모아서 당제를 치렀다. 최근에는 비용문제 등 여건 악화로 당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2) 규포마을 당제

규포마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산이나 당집은 없었지만, 정월대보름에 바닷가에 집집마다 상을 차려놓고 도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오래전에 당제가 끊겨 기억하는 마을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3) 교회

(1) 여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으로 고흥군 남현리교회가 후원하여 1957년 8월 5일 설립되었다. 전도사 손정원, 김상원, 신도 몇 명이 창립예배를 하였다. 초기에는 손정원, 김재남, 박병학 등 전도사가 교역자로 활동하다가 1973년 하수연 목사 부임 이후 주로 목사가 교역하였다. 현재 고주채 목사가 시무 중이다.

2019년 6월 10일 새벽 1시, 화재로 교회가 전소되어 인근의 교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산마을 이발소 앞에 50평 규모의 땅을 매입하여 2020년 4월 16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9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교회를 신축하고 있다.



여산교회 / 화재_다음카페 여수사도낭도 (<http://cafe.daum.net/sadopark/>) / 여산교회 터 화재 후 / 여산교회 터 화재 전 (시계 방향)

(2) 규포교회

1981년 여산교회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으로 현재 명이복 목사가 20여 년 동안 시무하고 있다.

